

코스피 2754.86 (+64.72)	코스닥 904.29 (+12.84)
금리 (미국 9년) 3.306 (-0.065)	환율 (원·달러) 1322.40 (-17.40)



선거 유세차량 본격 준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된 21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유세차량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정당 후보의 선거 유세 홍보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뉴스스

“가계 자금, 부동산서 주식 이동 국내외 성장분야 비중 확대해야”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수축경제시대 다양한 위험 대비
부채·세금·연금 등 관리 중요

2차전지·조선·방산 등 비중 확대
인구감소·고령화 따른 전략 필요

“100세 시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준비가 대한민국 금융,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산운용 측면을 떠나 부채관리, 세금, 연금 관리 등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년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수축경제 시기 100세 시대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선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축사는 권대영 사무처장이 대독했다.

〈관련기사 2~4면〉

수축경제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시장의 붕괴, 소비 감소, 생산성 감소, 자본투자 감소, 글로벌 교역감소를 일으키면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를 말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축경제에 접어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4% 증가했다. OECD 평균인 1.7%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국제기구, 국내연구소 등은 올해 GDP도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대비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2%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 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대 초반은 성장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2024년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을 경기 정점으로 경기는 수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금리는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축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테크 방안으로 주식업종의 경우 인공지능(AI), 바이오, 밸류업(Value up)기업에서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방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증시 전망 및 투자전략’에서 “구조적으로 가계 자금은 부동산, 예금에서 주식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국외 차별없이 성장

분야의 주식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은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7.2% 증액하고, 미국은 대만에 5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무기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방산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식비중도 늘려야 한다. 인구 고령화 상황에 맞는 의료기기(덴탈·피부미용·당뇨·비만)와 생산성 감소에 따른 자동차 기기(AI·로봇·자율주행) 주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은 인구감소를 감안한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축시대 부동산 투자’ 강연에서 “지방은 10년 이내, 수도권은 20년 이내 가구가 감소할 것”이라며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구분해 부동산 축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를 하더라도 세대별로 집에 대한 욕망이 다른 만큼 2030세대가 주목하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문위원은 “아파트를 떠나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를 기준으로 월세가 잘 나오는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in서울 병원’ 의대는 증원 무늬만 지역편차 극복 비판

서울캠퍼스 수업 성공관대 3배↑
지방병원 둔 서울소재 의대는 빠져

정부가 비서울권 의과대학에 2000명 증원을 배분해 발표한 가운데, 서울권 대학 중 의대 편제 지역에 따라 희비가 갈리며 ‘무늬만 지역 편차 극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 연계 병원을 두고 서울캠퍼스에서 대부분 본과 수업을 진행하는 성공관대 의대(소재지 수원)는 증원을 수십 명 늘린 반면, 경기도에 병원을 둔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권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빠지면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배정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인 경기·인천 지역 의대 전체 정원은 209명에서 570명으로, 비수도권 정원이 2023명에서 3662명으로 늘어난다. 서울 소재 8개 의대는 총 363명 증원을 신청했지만 배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배정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먼저 배정하되,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간 편차 극복을 위해 서울권은 제외하고 경인 지역에 나머지를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권 대학 내에서도 의대 편제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서울 ‘빅5’ 대형병원 중 삼성서울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공관대 의대가 대표적이다. 성공관대 의대는 경기도 수원 자연과학캠퍼스에 편제돼 이번 의대 증원 대상이 돼 기존 40명에서 3배 늘어 120명으로 늘었다.

서울에 부속병원을 둔 건국대 의대(충주)도 기존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중앙대(중앙대학교광명병원), 한양대(한양대학교구리병원)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나 지방에도 대학병원을 두고 있음에도 서울 소재 의대라는 이유로 이번 의대 증원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방과 달리 ‘지역인재전형’으로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아, 건국대·성공관대 등과 같이 의대 편제 지역이 비(非)서울이란 이유로 정부의 ‘지역 의료 확충’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hj@

‘비둘기’ 연준에 증시 환호... 코스피 2750선 돌파

美, 올해 3회 금리인하 전망 유지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한·일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 끼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3회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 일본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였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2.41% 오른 2754.86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2022년 4월 이후 23개월 만에 2750선을 뚫었다.

코스닥 지수도 1.44% 상승한 904.29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이 900선을 넘

은 건 지난해 9월 15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1조8705억원, 1조506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선 3588억원, 175억원을 사들였다.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장중 4만1000선을 넘보다 전장보다 2.03% 상승한 4만815에 거래를 마감했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4일에 기록한 증가 최고(4만109)와 지난 7일의 장중 최고(4만472)를 모두 갈아치웠다.

지난밤 뉴욕 주요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인 것이 한·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

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3% 오른 3만9512.13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89% 오른 5224.62, 나스닥지수는 1.25% 상승한 1만6369.41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같은 날 각각 종가 기준 사상 최고로 마감한 것은 2021년 11월 8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국 증시의 초강세 이유는 이날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점도표에서 연내 3차례 금리인하 방침을 유지하자 위험선호 심리가 되 살아났기 때문이다.

(6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지지율 3%p 하락 36%... ‘부정평가’ 56% /사진 뉴스스
▲ 민주주의정상회의 “시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선거 영향 엄정 대응”

▲ 조국혁신당 비례 30% 돌파... 민주 ‘과반’ 확보 차질 빛나
▲ 국민통합위 ‘과학기술 동행특위’ 출범... “자극심 갖는 연구환경 조성”



▲ 한미, 연합 도시지역작전 훈련 실시... 하마스식 기습공격 대비 /사진 뉴스스
▲ 스타트업계, 벤처펀드 100조 등 정책 제안... 민주 “세계최고 창업국가 노력”

“부실 PF 사업장 경·공매로 정리… 재구조화 작업 진행”

부동산PF 정상화 추진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현장 불합리 제도·관행 발굴·개선
건설업계 금융부담 완화에 노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PF 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PF 정상화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는 중이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협회에서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 및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건설유관업체 및 금융지주사 대표들과 마주했다.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회장, 함영주하나금융그룹회장, 이석준농협금융그룹회장, 김용범 메리츠부회장, 김태진GS건설사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1

장, 박경렬 DL이앤씨 CFO(재무실장) 등이 참석해 논의를 나눴다.

이 원장은 그간 사업성이 낮은 PF사업장을 중심으로 경·공매를 통해 정리하거나 용도를 바꿔 사업성을 높이는 재구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대전 물류센터 브릿지론 사업장은 용도를 변경하는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물류센터의 과잉과 업황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본 PF 전환이 지연되자, 용도를 물류센터에서 데이터센터로 변경했다. 또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상 금리(12.0→7.0%)의 브릿지론

도 공급해 2025년 중 본PF 전환 및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대출 만기 구조를 바꿔 사업성을 높이거나, 낙찰가를 낮춰 토지를 재매각해 브릿지 대출을 받아 인허가 작업을 하기로 한 사례도 있다.

이 원장은 업계를 향해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까지는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와 공사비용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PF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안의 심각성을 강

조했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 자금이 장기 묶이면 건설사와 금융사 모두가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개선해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 또한 금감원은 PF사업장의 사업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건설업계 측은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화 추진 사업장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업계 측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며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인구감소·수축경제 시대 대비, 100세 시대 준비해야”

축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사무처장 대독

“부채관리·세금 등 리스크 대비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인구감소로 진행되는 수축경제 시대, 100세 시대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권대영

사무처장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김 위원장은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며 이 위기를 어떻게 대

응해야 할 지 논의되는 시점”이라며 “인구감소가 나에게 미칠 영향에 대비해 100세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0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등 자산가격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어들 장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가치는 돈과 건강”이라며 “100세 시대를 어떻게 건강하고 풍요롭게 준비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 유병장수, 무전장수, 무업장수 등 3가지 장수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의료비가 생활비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건강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을 관리하고, 오래일할 수 있도록 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생각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며 “자산운용 측면을 떠나 부채관리, 세금, 연금 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0세 시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준비가 대한민국 금융,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100세 시대에 대비한 재테크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삶은 좀 더 풍족해지고, 대한민국 경제 금융은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의 성장을 이뤄 그 성과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면 ‘in서울 병원 의대는 증원’서 계속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뉴스1

“지역의료 살리는 안인지, 대형병원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

서울권 한 대학 관계자는 “성균관대의대는 예과 수업은 수원에서 이뤄지지만 본과 4년 수업 대부분은 서울에서 이뤄져 서울권 의대나 다름없다”라며 “성대는 사실상 서울 내 의대나 마찬가지인데, 의대 편제상 소재지에 따라 증원여부를 가리는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건 의료단체인 협회 관계자는 “의과대학은 그 학습과 실습의 성격상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대학의 위치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라며 “(그럼에도)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니만 지역’대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문제가 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증원 등 대형병원 증원 폭이 매우 크다”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医료를 살리려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대형병원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 의대의 주요 부속병원과 수련 병원이 어딘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며 “중앙대, 한양대 등 경기도에도 병원에 있는 대학들은 메인 부속병원이 서울이라고 판단했고, 반면 성균관대는 삼성서울병원이 아닌 다른 협력병원을 메인으로 두고 있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장기거주 주택 매물 증가… 맞춤형 재테크 전략 필요”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자산 스트레칭 시작해야 할 때”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일본 특파원을 지낸 제 언론사 후배의 아버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년 전 후배의 아버님은 ‘내 나이 칠십이면 인생 다 살았다’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칠순잔치를 치르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시려는 한 집 건너로 80세, 90세가 넘는 어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며 현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장기 거주 주택 매물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2배에서 3배까지 오른 시세 차익을 실현하면서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전략 같습니다. 비싼 동네에서 수십억원을 깔고 앉아 있는 게 맞는 것인 지 고민한 결과일 것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재배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자산을 활용해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

을 줄이는 것 또한 재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는 수축경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경제가 움츠러들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각자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근육이 움츠러들면 스트레칭으로 몸을 늘려주듯 우리의 자산도 스트레칭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바짝 들어간 힘을 빼고 유연한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자신만의 맞춤형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산 배분 현황, 위험선호도, 향후 미래 자금 수요 및 공급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고육비는 줄이고 현금자산은 늘려나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글로벌 경제위기, 자산증식 기회로... 채권·환율이 도움”

기조강연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서강대 교수)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시기에 걸맞는 투자처 강조
달러 하락, 엔·위안화 상승 전망
“금융민주주의” 시대가 찾아오길”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현재 세계 경제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히려 투자에는 좋은 기회로 활용 할 수 있어 환율, 채권투자 등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익 소장은 지난 20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글로벌 환율 전망 ▲한국 경제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다.

김 소장은 “짜이클 변동을 분석해야 자산 분배를 잘 할 수 있다”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어, 시기에 맞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2.8%)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 충격을 줬지만, 다음해인 2021년에는 6% 넘게 성장했다”며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면서 가계부채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소비는 위축됐지

는 역사상 최저까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에 거품이 끼었지만 현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부채를 줄이고 있다”며 “미국 국채 금리의 적정 수준은 4%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가 4%로 거품이 붕괴되면서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채권 투자를 많이 하라고 강연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권유하고 있다”며 “1년 전에 비해 채권 가격은 10% 넘게 올라지만 1년 만기 예금 이자는 불과 3~4%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투자의 경우 지난해 저점을 지나 올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금리인하 시점에서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자산증식에서 이득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올해 달러 가격이 하락하고, 엔화, 위안화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들어 달러 강제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연말을 기점으로 내년 말까지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엔화, 위안화, 원화 등 통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세계에서 미국 비중 축소를 시사했다. 달러 가치가 중기적으로 하락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금리 하락 시점에 돌입했기 때문에 경제 회복과 관련한 투자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금융민주주의’ 시대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만 금 가격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상황에도 투자처는 있다는 말이다.

김 소장은 전체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3가지로 경제성장률, 물가성장률, 자금 유동성을 꼽을 수 있는데 현재는 경제·물가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 예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에 돈이 남아돌고 있다”며 “기업의 자금 수요 감소로 인해 은행들은 채권을 구매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국가들은 금리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반대로 금리인하 시점이 떨어지고,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수록 채권 투자 매력은 떨어진다.

김 소장은 “코로나 시기 미국의 금리

포럼 이모저모

100세 시대 준비 ‘한마음 한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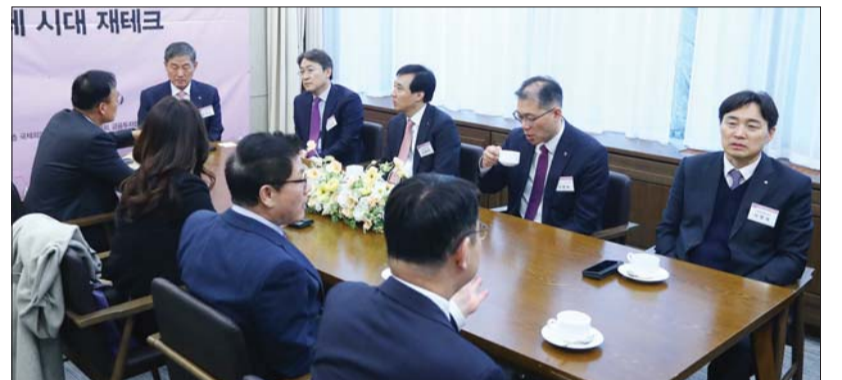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현장.

-‘생존 재테크’ 관심집중

지난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등 주요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포럼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수축경제 시대,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생존 재테크’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가 ‘생존 재테크’인 만큼 50~60대 중년층과 고령층의 참석자가 많았다.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대화하고 있다.

-VIP 티타임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김 소장은 “유튜브에서 김영익의 경제스쿨이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를 사칭해 다른 채널에서 중독 추천과 수수료 유도를 하고 있다”며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그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으로, 경제스쿨 이외에 다른 채널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공인회계사 증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 이 협회장은 “제가 공인회계사회에 있었을 때 공인회계사 합격 정원이 1100명에서 1250명으로 늘어났다”며 “회계업계에서 저항이 강했고 시위도 발생해 내부적으로 설득에 나섰다”고. 그는 “처음에 회계사 1000명이 될 때도 반대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300명이었다”며 “작년에 증원하지 않았으면 올해 정원이 더 늘어나서 범람이 심해졌을 것”이라고.



참석자들이 테블릿 PC, 스마트폰으로 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뜨거운 현장 분위기

강연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수첩에 적는 참가자들과 노트북과 테블릿 PC에 강연 내용을 적는 참석자들이 많았다. 특히 80세 고령층 참석자의 테블릿 PC 사용은 주위를 놀라게 했다.

80세 참가자는 “포럼 현장을 다니면서 수첩에 적는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단순 키워드만으로는 기억하기가 힘들어 테블릿 PC를 구매했다”며 “녹음과 동시에 한글파일로 키워드를 입력하면서 강연에 더욱 집중 할 수 있게 됐다”고.

/이승용 기자

“아파트 투자 시 최고의 가치는 ‘환금성’”

강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MZ세대 욕망 파악’ 강조
“재건축보다 신축 눈여겨봐야”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규제 강화,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먹구름이 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아파트의 경우 구조적 불황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투자 전략에도 이목이 쏠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MZ세대의 욕망 파악'이라고 강조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세대별로 집에 대한 서로 다른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

팔 수 있어야 한다. 대단지 등 택시운전자가 아는데 아파트에 초점을 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재건축보다는 신축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인구쇼크를 감안한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지방은 10년 뒤에 인구쇼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인 서울은 가구수가 204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쇼크는 20년 뒤에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원룸주택, 상가 등을 구매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10년 전 버전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가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오피스, 스튜디오 등을 임대해 월세 수익화가 가능한 곳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금융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과 주식을 5대 5로 가져가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

야 한다”면서 “20대 남성들은 ‘한강뷰’ 아파트를 원하고, 일본 MZ세대의 주거 로망은 ‘타워 맨션’(2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사람의 공간 욕망을 파악해야 부동산 투자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MZ세대, 특히 35세 여성 시각에서 부동산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투자 시 환금성이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이 비싸지면서 거래가 줄고 있다. 2006~2023년 전국 아파트 거래회전율은 6.7%에 그쳤다”면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할 때



포럼을 빛낸 VIP 참석자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가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이정희 메트로신문 상무, 이한태 금융투자협회 상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상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김승중 메트로신문 편집국장. /손진영 기자 son@

“밸류업 프로그램 시작이 ‘기회’... 주식투자 비중 확대해야”

강연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韓 부동산 자산 94%, 주식 비중은 낮아
유망업종에 조선·의료 등 투자해야
AI·로봇·자율주행 등 중장기적 주목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지난 20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100세플러스 포럼'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등 한국 주식시장이 바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배당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염 이사는 “해외 자본을 포함한 자본들이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으로 유입시켜 기업들이 자금 조달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국내 자본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면서 주가지수 또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증시가 재평가 받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염 이사는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자산이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전환하는 부의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조선, 의료, AI산업 유망

염 이사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가 상승에 제일 중요한 건 기업들의 이익”이라며 “기업들의 이익은 미국, 중국 경기가 결정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중요한데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데다 중국 경제가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가도 감소하고 있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염 이사는 “미국이 버터주고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등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5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금리를 6월에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주식시장 상황이 좋은 데다 부동산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확 떨어져 있어 미국의 경기가 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미국 상황을 정리해 보면 금리 인하는 6월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이사는 올해 유망한 국내 업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규제에 조선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선박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가 시행되면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조선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조선소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건강 및 의료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염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젊은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그 결과로 덴탈, 피부 미용, 당뇨병 치료제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무인화 등의 시장도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현금흐름·연금종류 정확하게 파악하고 노후설계 필수”

강연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본부장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본부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현금 부족하면 ‘주택연금’ 주목
부동산 ‘현금화’ 합리적인 판단
퇴직금 IRP 계좌 보관해야 강조

“자산관리란 험지를 해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탄한 인생을 원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돌을 만나면 터널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본부장은 지난 20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요한가? ▲내 연금 얼마나 되나?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하는 연금계좌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전략 등 은퇴 후 효율적인 자산관리 비법을 공유했다. 태풍에 대비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처럼 불확실한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232만 원이다. 이를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로 확대하면 월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한 부부가 서울에서 양질의 삶을 지양한다면 매달 33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광역시 기준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는 203만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279만원이다.

문제는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할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김 본부장은

직업이 있을 때 부부가 맞벌이를 했다면 은퇴 후에는 효율적인 ‘연금 맞벌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본인과 배우자가 수령할 연금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등이다. 부부의 연금이 최소 노후생활비에만 근접해도 현금 흐름 파악 등 별도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은 떨어진다.

부부가 연금을 합쳐도 최소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특히 현금 보유량이 동년배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금수령 전 ‘소득공백’ 시기가 분수령이다. 소득이 급감하는 시기가 노후

대비의 ‘첫 고비’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반드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퇴직연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계좌와 동일하지만 건강보험료 면제 및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김 본부장은 “해발 8800m의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지점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 올 때인 정상에서 800m 지점”이라며 “주로 하산할 때 사고가 발생하는데 퇴직 후 소득공백 시기가 하산과 똑같다고 인식하시면 된다”고 했다.

본인이 수령할 연금의 종류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된다.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3일 이내 연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부부가 받을 연금의 종류와 월 수령액을 확인했다면 ‘연금흐름표’를 만들어야 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NH농협금융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잠재력이 있어도,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에겐 금융의 손길만큼 절실한 것이 또 있을까요?
NH농협금융은 오픈 비즈니스 데이와 디지털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에게 금융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이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H농협금융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일자리 327만개 대체 가능... 노동시장 변화 대응은 '전무'

AI의 빛과 그림자

대체 가능 일자리 60%, 전문가 직종 채용 안하거나 축소 등 현장 체감 국내기업, 생성형 AI 도입 '긍정적' 정부, 고학력 인력 확충 등만 관심 지난해 11월, 고용축소 대책 '첫발'

인공지능(AI)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이 견잡을 수 없이 늘어나며 노동 현장을 흔들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이미 AI 도입과 관련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AI 도입에 필요한 개발 인력 수요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기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개에 달하며 특히 대체 가능한 일자리의 60%가 전문가 직종에 집중됐다. 산업별로는 제조



미국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손가락을 이용해 달걀을 들어 옮기는 모습. /테슬라 유튜브

업(93만개), 건설업(51만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6만개), 정보통신업(41만개) 순으로 AI 대체 가능 일자리가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AI 관련 기술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문가 비중이 높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5만개)과 정보통신업(38만개)도 대체 위험

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 일자리 소멸 위험군의 99.1%가 경영·금융전문가 직종이었다.

송단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의 노동 대체 양상은 과거 로봇이 생산직 일자리를 대체한 것과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AI가 이미 석·박사급 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동수요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일자리 대체 속도를 체감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명 게임사에 근무 중인 개발자 김영아(가명)씨는 이미 캐릭터 디자인과 3D 모델링 등 영역에서 생성형 AI가 도입돼 관련 부서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넷마블과 크래프톤은 지난해 하반기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고, 엔씨소프트 또한 공개채용 부문을 17개에서 8개로 축소했다. 대부분 기업이 팬데믹 특수가 사라지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김씨는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통한 직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라고 하지만 줄어든 팀과 사라진 직원들의 행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지금은 일러스트나 모델링 등 이미지와 디자인 영역 중심으로 AI가 도입되지만 이미 다른 업계에서 마케팅이나 스토리텔링 등에서까지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면 아마 나도 곧 해고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 의지는 적극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1~2월 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50개사의 38.0%가 생성형 AI를 회사 차원에서 사무직군에 도입했다고 답했다. 회사 차원에서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미도입 이유는 '정보 유출 우려'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으나 그다음으로 '전문인력 확보 등 준비 필요'(29.0%), '업무특성상 필요하지 않음'(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도입 예정이거나 업무 특정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AI 도입으로 인한 인력 감축의 구체적 사례는 지난해 12월 있었던 KB국민은행 콜센터 해고 사건 1건이 전부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 해석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 매월 미국 내 해고 규모를 조사하는 재취업 알선 기업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는 인력 감축에 대해 기업이 실제 이유를 숨긴다고 지적했다. 챌린저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인력 감축의 주요 요인은 구조조정 계획이었고, AI 도입에 따른 해고는 383명에 불과했다.

앤드류 챌린저 수석 부사장(노동 관련 전문가)은 해고 규모의 확대를 "AI 도입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일축한다. 그는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혁신을 수용하면서 인력 수요가 크게 재편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인력 감축 주요 요인을 구조조정 계획으로 꼽았지만, 이는 AI 도입으로 인한 해고라고 명시했을 때 오는 반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챌린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247개 일자리 감축에 AI가 언급됐다.

빠른 속도로 노동 시장은 변화하지만 한국 정부의 관련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총선이 한 달여 남은 현재 각 당당이 내세운 정책에 AI 도입과 실업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정부가 현재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환경 변화와 일자리 상실보다 AI 개발을 위한 고급 인력 창출에 더 관심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후보들은 지난 18일 제22대 국회 개원 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약칭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결의했다. 청년취업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선거구별로 내놓은 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R&D 허브 조성, 반도체 감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등 고학력 인구인력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안이다.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노동 강도의 변화도 AI 도입에 따른 현상 중 하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KB국민은행 해고 사태는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 강도의 변화도 입증했다. 당시 KB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원 240명이 AI 챗봇 도입에 따른 상담전화 건수 축소를 이유로 콜센터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현장 시위에 나선 콜센터 상담원은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AI 챗봇까지 도입되자 콜센터로 복잡한 고강도 노동이 집중되고 있다"며 "심지어 차별화를 위한 감정 노동까지 추가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차원에서 고용 축소 등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11월 간신히 첫걸음마를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AI 기술 발전과 확산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보고서를 통해 노동법 체계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 법 개정도 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X하우시스 www.lxhausys.co.kr

결국 LX Z:In이거나, 아니거나

편의성에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창호, 슈퍼세이프

LX Z:In

"인플레이션 2% 목표 수준으로 둔화할 것"

>> 1면 '코스피 2750선 돌파'서 계속

앞서 월가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에다 올해 1~2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1~2월 물가지표에서 너무 많은 신호를 집어내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이 율통불통한 여정을 거치더라도 2% 목

표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이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파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장 마감 직후 미국의 반도체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과 3분기 전망치를 내놓은 점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원관희 기자 wkh@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원하든



금융생활의 A부터 Z까지
우리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 금융 생활의

A TO Z

 우리은행

진보 텃밭... '5선도전' 심상정에 한창섭·김성희 '도전장'

22대 총선 격전지

경기북부 고양갑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상징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4선)이 경기 고양갑에서 '진보정당 최다선'이라는 자신의 기록을 연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의 당세 약화로 인한 기회를 한창섭 국민의힘·김성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잡기 위해 3자구도를 연출할 전망이다.

고양갑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인 주교동·원신동·흥도동·성사1~2동·고양동·관산동·화정1~2동과 일산 신도시 일부인 석사동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구 유권자들은 개혁국민정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유시민 전 작가를 당선시켰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심 의원을 3번 선택할 만큼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개혁적인 공약을 들고 개인기로 선거를 돌파한 결과 심 의원이 4선 고지에 오르며 지역의 입지를 다졌다.

◆처음 겪어보는 미미한 당세, 심상정 돌파할 수 있나

지역구 투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한창섭



김성희



심상정

독자노선 녹색정의당 심상정 철도중심·녹색도시 만들것
與, 정치신인 한창섭 출사표
서울 편입 등 공약 내세워

野, 뉴페이스 김성희 후보
경의선 도심 지하화 등 목표

정의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9.67%를 득표했으나, 실제로 배분된 의석은 5석에 불과했다. 여기에 고양갑에서 당선된 심 의원을 합쳐 총 6석으로 21대 국회 4년을 치렀다.

류호정 개혁신당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의 이탈 논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파문, 민주당 2중대 논란을 겪으며 그 동안 선명한 진보정치로 유권자들을 설득했던 정당의 존재는 미미해져갔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의 일원들이 제3지대 정당으로 옮겨가는 일도 생겨났으며, 녹색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통합형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중이다.

다만,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신당이 우후죽순 처럼 생기는 가운데, 거대 양당의 극단적 정치가 유권자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가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권자 2027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녹색정의당은 1.7%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미래 35.3%, 조국혁신당 30.2%, 더불어민주당연합

19.2%, 개혁신당 4.4%, 새로운미래 3.3% 순이었다. 원내 6석의 녹색정의당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총선 때까지 유지한다면 비례대표 의석 장벽인 3%를 넘지 못해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3일 고양 시청에서 열린 22대 총선 출마 선언식에서 경기고양갑을 "철도중심도시와 녹색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료 출신 '한창섭'·국회 출신 '김성희' 도전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이자 32년간 공직에 몸 담은 한창섭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를 당하자, 직무를 대리한 바 있다.

정치신인인 한 후보는 ▲서울 편입 ▲시청 이전 전면 재검토 ▲고양시 철도 및 광역 교통 확충을 통한 교통 혁신 ▲재건축, 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통한 도시정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발표할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고양갑 민주당 후보였던 문명순 전 지역 위원장과 김성희 후보를 경선을 붙여서, 김 후보에게 공천장을 줬다. 김 후보는 신계륜·정청래·손혜원 의원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유튜브 '김성희의 오피스 소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약 2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정치 유튜버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경기 고양 갑을병정에 공천된 후보와 함께 고양 발전을 위한 ▲경의선 도심 구간 지하화 ▲제1자유로 대심도 추진 ▲고양페이 ▲고양시청 이전 원안 존치 등의 공약 발표를 할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어르신 위해 공공임대 매년 3000호 공급” 이종섭 자진귀국에 민주, 수사 촉구

尹, 스물 두번째 민생토론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도입 등 주거·식사·의료·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종합대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주거 문제와 관련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기존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1000호씩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보급하겠다고 “중산층 민간임대나 ‘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주택 형태로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꼽으며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시설을 갖추고 의료·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시설 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방식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요양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도 현재 3만8000원에서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인 ‘간병비 지원’ 정책의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과 휴가제를 수요자 필요에 맞춰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1670개소 ‘미등록 경로당’도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양성화하고 난방비, 양곡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65세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원주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홍익표 의원 등 공항 달려가 외압·대통령 개입 의혹 규탄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아우 속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전 장관의 자진 입국은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E번 도착 게이트로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이 전 장관은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선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입시귀국한 것은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향후 일정과 관련해 방산협력 관련 업무로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다음주는 한국과 호주간 기획된 2+2 회담 준비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말씀드린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대사로써 해야 할 중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요한 의무다. 그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추가로 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준비돼 있던 차를 탔다.

이 전 장관의 해임과 즉시 귀국을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과 더불어민주당연합 본부장단이 인천국제공항을 새벽부터 찾아 이 전 장관의 귀국을 기다렸다. 민주당에선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김민석 상황실장, 한준호·오기형 의원, 노종면·모경중·안귀령 후보 등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연합에선 강민정·이동

주 의원, 박홍배, 최혁진, 한창민 비례대표 후보가 자리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입국과 동시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었다.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하는 홍익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의 귀국에 따라 일정도 연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로 복귀해 이 전 장관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호주 대사 임명을 규탄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죽음에 외 일어나고 누구에 의해 사건이 은폐되고 외압으로 좌절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권력이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 해서 뜻을 이룬 적 없다”며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이 그렇다. 오히려 그 책임과 시만의 강도만 더 커질 뿐이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가 처벌받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의 해임과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2차)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 2항에 의거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하려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관련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86-97, 186-102, 186-82
 소유주 : 이경순, 전수정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
 공고인 : 협성설비(주)
 연락처 : 조규준 010-9011-9304

2024. 3.22

/박태홍 기자 pth7285@

포스코그룹, 장인화 대표이사 회장 취임

“철강·이차전지 소재 사업 정진… 무조건 성공시킬 것”

초격차 비즈니스 등 3色 전략 발표 100억대 ‘스톡그랜트’ 재검토 시사 포항 등 주요 사업장 현장경영 추진

포스코그룹이 장인화 회장 체제를 시작한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신임 회장은 21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사회를 통해 포스코그룹 제10대 대표이사 회장에 정식 선임됐다.

장 회장은 이날 오후 포항에서 취임식을 갖고 포스코그룹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는 한편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전략 방향으로 ▲미래기술 기반의 초격차 비즈니스 선도 ▲함께 성장하는 역동적 기업문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구현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 구축을 정했다.

그룹의 핵심사업인 철강·이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업황이 부진한 상황을 기회로 삼고 정진한다는 방침이다. 장

회장은 “현재 철강업은 경기가 좋지 않고, 이차전지소재사업도 신사업이 겪는 ‘캐즘’(시장 대중화 직전 수요 침체) 초기에 있다”며 “위기의 순간에 경쟁력을 키워가다보면 경기가 되살아났을 때

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룹의 신성장동력인 이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회사의 신사업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기차는 ‘지구의 운명’으로 큰 틀에서는 (성장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기에, 적절한 투자를 통해 무조건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논란이 됐던 ‘스톡그랜트’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톡그랜트는 일정 기간 성과에 따라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포스코는 경영진에 지나친 성과급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장 회장은 “스톡그랜트는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시작됐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

해 이 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검토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회장은 주총을 이후 포항 본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개최한다. 장 회장은 특히 이번 포항 방문을 시작으로 100일간 주요 사업장을 돌며 현장과 직원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현장 경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 회장은 포항 본사 직원들 앞에서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이라는 새로운 비전도 제시한다. 또 지역 단체나 시민 등과 만나 포스코와 지역의 상생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전임 최정우 회장 시절에는 지주사 설립과 관련해 본사 위치를 놓고 포항 시민단체들과 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장 회장은 이 같은 갈등도 적극적으로 화합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상반기 중 ‘익시’ 출시… AI 기반 B2B 강화”

(자사 AI 서비스)

LG U+ 주주총회

황현식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안 의결 전환지원금 정책 관련하여 아쉬움 표해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전환(DX) 사업자로 거듭나 기업간거래(B2B)에서 가장 큰 성장을 만들어가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주주총회 직후 변호사동 지원금 ‘전환지원금’과 관련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21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제2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LGU+는 고객 중심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며 “전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거세고 빠르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고객경험혁신, 플랫폼 사업 성공은 모두 디지털경험(DX) 역량에 좌우된다는 생각 아래 AI-데이터 기반의 사업 성과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자체 익시(ixi) 브랜드로 개발 중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진행된 제28기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인 초거대 AI 익시젠(ixi-GEN)을 AI 사업의 중추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상반기에 자사 AI 서비스 ‘익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성형 AI 엑시원, 익시 솔루션 등을 붙여서 고객들에 대한 상품·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내부 생산성을 혁신하고 다른 기업에 상품·서비스화하는 그런 쪽에도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대표 승인의 건 ▲정관변경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먼저 황 대표(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의결됐다. 황 사장은 지난 2020년 11월 LG유플러스 대표 취임 후 역대 최저 해지율 기록, 주주환원 강화, AI·플랫폼 등 신사업 전략 구축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연임이 확정됐다.

배당일 관련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앞으로 배당금이 확정된 이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한다. 아울러 김종우 한양대 교수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한편, 황 대표는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황 사장은 “전환지원금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실제 국민 통신비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제네시스, 최상위 트림 ‘G90 블랙’ 출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G90의 최상위 트림인 ‘제네시스 G90 블랙’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G90 블랙은 제네시스만의 진정성 있는 블랙 디자인 콘셉트 ‘제네시스 블랙’을 적용한 브랜드 최초 모델이며, 내·외장의 모든 부위를 블랙 색상으로 마감해 고급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G90 블랙의 판매 가격은 1억 3800만원부터 시작한다. /제네시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G90의 최상위 트림인 ‘제네시스 G90 블랙’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G90 블랙은 제네시스만의 진정성 있는 블랙 디자인 콘셉트 ‘제네시스 블랙’을 적용한 브랜드 최초 모델이며, 내·외장의 모든 부위를 블랙 색상으로 마감해 고급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G90 블랙의 판매 가격은 1억 3800만원부터 시작한다. /제네시스

한화솔루션, 초고압케이블 시장 개척 속도

XLPE 등 차세대 제품으로 글로벌 공략

한화솔루션이 독자적인 기술력 기반의 초고압케이블 소재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세계적인 전력망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소재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화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400킬로볼트(kV)급 케이블용 XLPE와 해저케이블용 XLPE 등 차세대 제품들을 앞세워 초고압케이블 소재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XLPE(Cross Linked-Polyethylene)는 폴리에틸렌(PE)에 특수 첨가제를 넣어 열에 견디는 성능을 향상시킨 고순도 절연 제품이다.

한화솔루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400kV(킬로볼트)급 케이블용 XLPE를 개발해 외국인 제품 대체에 나섰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케이블 업체들로부터 초고압 XLPE 제품 품질 인증을 순차적으로 획득하고, 국내 대형 케이블 프로젝트를 비롯해 해외 수출용 케이블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급성장한 해저케이블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 한화솔루션이 해저 특수 규격에 맞춰 자체 개발한 해저케이블용 XLPE는 글로벌 케이블 업체의 제품 품질 인증을 거쳐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로 수출처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3년 한화솔루션 초고압케이블 소재 사업은 전년 대비 매출이 약 61% 증가했다. 오스트리아의 보레알리스, 미국의 다우에 이은 세계 3위의 XLPE 생산 능력(11만톤 규모)을 자랑한다.

한화솔루션은 연 평균 7% 이상 고성장하는 글로벌 초고압케이블용 XLPE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반도체 소재 EBA(Ethylene Butylacrylate Copolymer)를 포함한 다양한 케이블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재식 한화솔루션 PO사업부장은 “다양한 초고압케이블 제품을 비롯한 기술력 기반의 고부가 소재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로템, K2 전차 폴란드 출고분 적기 도착

18대 도착… 신속한 생산·출고 호평

올해 첫 폴란드 K2 전차 출고분이 현지에서 적기(適期) 도착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12~20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드니아항에 K2 전차 18대가 순차적으로 도착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출고분 56대 중 나머지 38대는 하반기에 출고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 소요

분 총 180대에 대한 1차 실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2년 10대, 지난해 18대를 보냈다. 이번 출고를 포함해 현재까지 폴란드에 도착한 K2 전차는 총 46대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씩 앞당겨 조기 출고하는 등 신속한 생산·출고 관리로 호평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현지에서도 K2 전차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K2 전차의 생산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부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품질경영’ 기반, EV 경쟁력 강화·SDV 중심 전환”

현대자동차, 제56기 주주총회
장재훈 사장, 사내이사로 재선임
기말배당금 주당 8400원 확정

“전기차(EV)의 근본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현대자동차가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제56기 주주총회 인사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경영 방향을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장 사장은 오는 2027년까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함께 현대차를 계속 이끌게 됐다.

장 사장은 이날 “올해 글로벌 경제가 여러 대외적 불안 요인으로 경기 변동성이 심화되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산업 수요가 타격을 받는 등 위기감이 확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자동차 분야에서는 경쟁사의 공격적 전기차 가격 인하 정책으로 원가경쟁력 확보 경쟁이 시작됐으며 우려를 표했다.

장 사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현대차 성장의 근간이 돼 온 ‘품질경영’을 기반으로 전기차 경쟁력 강화와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차)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기본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 품질경영 강화와 함께 ▲유연하고 민첩한 사업 대응력 강화 ▲전기차 근본 경쟁력 강화 ▲SDV 전환 체계 본격화 ▲전기·수소 에너지사업모델 구체화 및 생태계 구축 ▲인재 확보·조직문화 혁신 등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장 사장은 “지역별, 차종별로 유연하



현대차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 등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재선임 안전 통과. /현대차

게 물량을 배정하고, 민첩하게 생산·판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가 확대되자, 내연차 전 라인에 걸쳐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차 전환기, 일정 수준 내연기관차 수요를 흡수해갈 것이라 판단도 작용했다.

현대차는 이르면 올 연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공개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싼타페 하이브리드 양산도 빠르게 늘려나갈 방침이다.

미래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근본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부품과 제어기의 통합 및 내재화, 설계·공정 혁신 등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상품 라인업 효율화, 신형국별류체인 강화를 통해 EV의 근본적 원가절감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고유의 EV 판매 포인트를 개발하고, 충전 솔루션 확대 등으로 서비스를 차별화하겠다”며 “올해 계획 중인 중대형 전기차 SUV의 성공적 출시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장 사장은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SDV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높인다. 그는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AVP

(Advanced Vehicle Platform) 본부를 신설한다”며 “분산된 연구개발 조직을 통합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 양산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집중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차량 제어를 전자·편의, 주행 성능, 인포테인먼트, 첨단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4가지 기능 영역으로 각각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이어 작은 부품부터 생산까지 아우르는 ‘칩 투 팩토리’ 전략을 통해 SDV 양산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장 사장은 전기·수소 에너지사업모델 구체화와 관련, EV 판매와 연계해 글로벌 충전사업자 연결플랫폼을 구축하고, 홈 충전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조직을 구축하고, 인재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주총에서 기말배당금 주당 8400원(보통주 기준)을 확정했다. 이사보수한도액도 전년 대비 18억 원 증액한 218억 원으로 확정했다.

/양성은 기자 ysw@metroseoul.co.kr

LG이노텍 “전장매출 5년 내 5兆 목표”

문혁수 대표 “자율주행·ADAS 집중”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가 5년 안에 전장사업 매출을 5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21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빅테크 고객과 함께 광학솔루션 사업을 세계 1위로 키워낸 경험이 있다”며 “전장 사업은 현재 2조원대 매출을 하고 있는데, 5년 내에 5조원대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사업 다변화의 일환으로

전장 사업에도 주력하겠다고 그 일환으로 최근 경영진들과 독일의 벤츠사를 방문한 것을 언급했다. 문 대표는 이달 초에도 LG그룹 계열사 CEO들과 함께 독일을 방문해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그룹 회장을 직접 만났다.

문 대표는 앞으로 전장 사업에서 자율주행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카메라 뿐 아니라 라이다 센서와 레이더 등을 합쳐 자율주행 관련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엔솔, 기술역량 바탕으로 고객가치 실현

가장 많은 특허 보유·기술력 확보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고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500조원에 달하는 수주액과 풍부한 글로벌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산능력과 전 세계 배터리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술력 확보, 자동차전지·소형전지·ESS에 이르는 다양하고 압도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위기에도 견뎌 낼 수 있는 든든한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개최된 국내 최대 2차전지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에서는 차별화된 배터리 기술력을 과시했다. 전시 부스에서 최초로 공개한 파우치형 배터리 셀투팩(CTP, Cell To Pack)부터 미드니켈(Mid-Ni) 조성을 처음으로 적용한 소형 파우치 셀 등을 공개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이끌었다.

전시회 기간 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셀투팩 기술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첨단 팩 디자인이다.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 팩에 직접 셀을 조립함으로

써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배터리 무게와 비용을 절감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파우치형 셀투팩은 파우치 셀의 가벼운 무게 특성을 가져가면서도 팩 강성을 높이고 검증된 열 전이 방지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처음 공개한 IT기기를 미드니켈 소형 파우치 배터리는 100% 미드니켈 조성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고전압 영역을 가능하게 만든 업계 최초 기술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24 인터배터리 어워드’에서는 ‘미드니켈(Mid-Ni) Pure NCM’으로 ‘종합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기존 LCO(리튬코발트산화물)배터리 대비 가격 안정성 또한 확보할 수 있어 노트북 등 IT기기를 배터리 산업의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도 성장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확보해 경쟁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성은 기자

제주항공, 사업 다각화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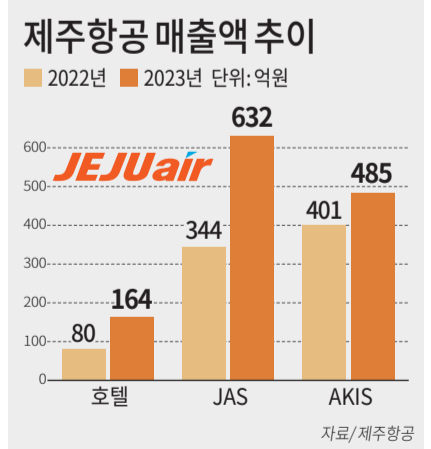
호텔·지상조업·IT 등 자회사 시너지
외국인 관광객 등 고객 유치 집중

제주항공이 호텔, 지상조업, IT 등 자회사와의 시너지 확보와 함께 사업 다각화로 미래 성장 기틀 마련에 집중한다.

21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2023년 연결 기준 1조7240억원의 매출액과 169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의 항공운송사업은 1조6993억원의 매출과 1618억원의 영업이익을 나타냈다. 제주항공의 자회사인 호텔사업, 에이에이에스(JAS), 에이케이아이에스(AKIS)는 각각 164억원, 632억원, 485억원으로 역대 매출을 달성했다.

제주항공은 중·단거리 중심의 항공운송사업과 뛰어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호텔사업으로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여행) 고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흥대에 위치한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서울흥대’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접근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이지드랍서비스, 런치뷔페 운영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다양한 국적의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지상조업 자회사 JAS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 8개 공항에서 여객발권 및 수속, 수하물 이동 및 탑재, 항공기 급유 등 지상조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설립 6주년을 맞이한 JAS는 설

립 이후 28만6614편의 지상 조업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5만162편의 조업 업무를 수행하며 850만여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했다. JAS는 지난해 632억원의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2019년 355억원 대비 78.0%, 2022년 344억원 대비 83.7%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엔데믹 이후 꾸준한 성장을 통해 1분기 126억원, 2분기 144억원, 3분기 177억원, 4분기 18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9월 새롭게 자회사로 편입한 AKIS를 통한 IT경쟁우위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2007년 설립된 AKIS는 항공, 유통, 제조, 화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IT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2022년 401억원, 2023년 48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제주항공은 AKIS의 자회사 편입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양성은 기자

젠슨 황, 삼성 HBM3E에 ‘승인’ 친필 사인

(엔비디아 CEO)

한진만 부사장 SNS에 사진 게재

21일 한진만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미주총괄(DSA) 부사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CEO가 삼성의 HBM3E 12H에서 명한 사진을 올렸다.

한 부사장은 사진과 함께 “삼성의 HBM3E에 승인 도장(stamp of approval)을 찍어줘 기쁘다”고 글을 남겼다. 승인 도장은 ‘젠슨이 승인함(Jensen Approved)’이라고 적혀 있다.

정황상 젠슨 황이 삼성전자 행사 부스에 들러 제품을 관람하고, HBM3E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GTC2024에



한진만 삼성전자 DS 부문 미주총괄 부사장이 SNS에 게시한 젠슨 황의 서명. /SNS

서 지난 달 발표한 HBM3E 12H를 최초로 실물 공개했다.

HBM3E는 AI 서버용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5세대 제품으로 HBM3E 12H는 업계 최초로 D램을 12단으로 쌓은 모델로 수직 연결한 D램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렸다. /김서현 기자 seoh@

제9회
베지노믹스페어

vegan & **green**
Festa & Festa

www.veganfesta.com

서울비건 &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 | 생활용품
푸드테크 | 대체 소재&친환경 기술

2024.5.31(금)~6.2(일)
SETEC 전관

주최 서울특별시  (주) 베지노믹스페어 



호텔같은 편안함... 예비 신혼부부에 '강추'

비렉스 시그니처 매트리스 코웨이

'듀얼 서포트 시스템'으로 세밀한 지지력

코웨이가 슬립 및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BRERX)'를 통해 프리미엄급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리미엄 라인인 '비렉스 시그니처 매트리스'다. 호텔 침대 같은 포근함과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특징점을 기반으로 예비 신혼부부 등 숙면에 흔쾌히 지갑을 여는 수요를 겨냥했다.

시그니처 매트리스는 코웨이의 수면 기술이 담긴 '듀얼 서포트 시스템' 설계를 통해 부드러우면서도 부위별로 세밀한 지지력을 제공한다. 스프링을 이중으로 탑재해 상단부에서 일차적으로 신체를 부드럽고 촘촘하게 받쳐주고 하단 스프링이 부위별



하중에 따라 9개 영역으로 나누어 빈틈없이 지지해준다.

내장재 간 유연성을 높이는 이너터프팅 공법을 통해 오랜 시간 풍성한 착와감을 유지할 수 있다.

프리미엄 매트리스에 걸맞게 통기성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레이온 린넨 원단 및 브리즈 메모리폼 등 고급 내외장재를 사

용했다.

고급형 모델인 '시그니처 매트리스 컴포트(사진)'는 최상단에 컴포트 탑퍼를 추가로 적용해 한 단계 높은 폭신함을 제공한다. 양모와 마이크로하이퍼 패딩이 함유되어 쿠션감과 보온성을 더해준다. 수면 환경과 개인 취향에 따라 손쉽게 탈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코웨이는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프레임까지 투매트리스 타입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다. 주로 호텔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매트리스 프레임은 매트리스를 받치는 하부 파운데이션에 스프링이 탑재된 형태다.

코웨이는 '비렉스 볼륨 프레임', '비렉스 우디 프레임' 등 신제품들을 투매트리스 타입으로 선보이며 고급 수요 잡기에 나섰다. 지난달 출시한 볼륨 프레임은 쿠션형 헤드보드를 적용해 침대에 기대어 앉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두근두근' 새... "설레는 계절..."

겨울이 가는 것을 좀처럼 아쉬워하고 있다. 그래도 봄은 온다. 새...
에서 새 보금자리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결혼을 통해...
의 행복한 웃음소리도 들려온다. 2024년 봄을 맞아 집안을 환하게...
전 아이템들을 21일 소개한다.

바닥 흡입속도 UP... 반려동물 털·냄새 집중관리

웰스 에어가든 공기청정기 교원 웰스

한옥 모티브 '토출구' 소음 4dB 낮춰

봄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며 실내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반려가구 증가로 바닥 공기청정 능력이 주요한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원 웰스(Wells)가 선보인 '웰스 에어가든 공기청정기(사진)'는 특허 기술인 토네이도 흡입 시스템에 '에어로스톰팬(Aero-Storm Fan)'과 한옥의 처마에서 모티브를 얻은 토출구를 적용해 소음은 4dB 낮추면서, 바닥 흡입 속도는 3배 향상해 조용하면서 강력한 공기청정 성능을 구현한다.



원통형 구조로 360도 빈틈없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올케아 7단계 필터 시스템을 탑재해 0.01μm 초미세먼지를 99.999%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집안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7가지 생활 맞춤형 필터를 이용해 우리 집의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려가구를 위한 '펫 전용 필터'를 비롯해 알레르기, 탈취, 매연, 새집탈취, 향균, 초미세먼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웰스 에어가든 공기청정기'는 반려동물의 털과 배설물 냄새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펫 케어'와 소음을 낮춰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정음' 모드를 비롯해 ▲자동 ▲터보 ▲취침 등 다양한 편의기능도 갖추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전기료 부담도 적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제품 부문을 수상하며 인테리어 오브제로서의 가치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사이즈 60%로 줄여

초소형 직수 정수기 SK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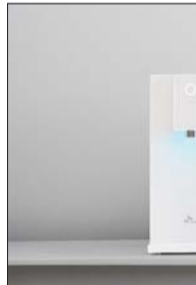
물 흐르는 모든 유로 '올-스테인리스'

SK매직이 크기를 혁신적으로 줄인 '초소형 직수 정수기(사진)'를 선보이고 오는 4월30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초소형 직수 정수기는 기존 자사 직수 정수기 대비 약 60%로 크기를 줄여 혁신적인 주방공간을 제공한다.

작고 슬림해 더욱 넓고 여유로운 주방 공간을 원하거나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모던한 디자인으로 ▲내추럴 화이트 ▲파스텔 핑크 ▲파스텔 블루 ▲메탈릭 그레이 4가지 색상으로 구성해 다양한 인테리어에 맞춰 나만의 주방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기능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물이 흐르는 모든 유로를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오



염, 부식, 세균에 강...
리스'로 제작해 약 10...
경호르몬 등 각종 유...
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진공의 고성능 단...
크기는 줄이고, 에너...
50%까지 낮췄다. 기...
플라스틱 사용률도 2...
티로폼) 사용률도 최...
SG 가치를 실현한 진...

▲직수관 전해수 단...
코크UV케어(2시간...

가구, 스토리 담은 작품으로... 소장가치 상승

마이스터 컬렉션 현대리바트

5개 공간테마에 맞춰 신제품 개발

현대리바트가 지난해 선보인 프리미엄 가구 라인 '마이스터 컬렉션'은 국내 가구 디자인에서 벗어난 '독특한 차별성'으로 승부하며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마이스터 컬렉션은 5가지 컨셉의 공간테마 ▲Quiet Luxury ▲Object ▲Rarer ▲Unique ▲Nano Furniture를 개발하고 이에 맞는 신제품 라인업을 자사 프리미엄 가구 개발 연구실 '마이스터 랩(Meister LAB)'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가구를 단순히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 스토리가 담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소장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대리바트의 마이스터 컬렉션 '플로랄' 침대.

최근 선보인 티 테이블 '플루티'와 '이데스'는 일반적인 다리 형태를 탈피한 독특한 디자인을 접목시켰다. 단순한 테이블 기능을 넘어 공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오브제 역할에 주목했다. '플루티'는 호수 수면 위에 비친 우아한 백조의 실루엣을 담았으며,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이데스'는 링

귀걸이의 화려함에서 영감을 받아 서로 다른 원형을 쌓아 올린 유니크한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연의 협곡과 폭포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포스 식탁'에 이어 원목 곡선 디테일과 간살 형태가 매력적인 '포스 거실장'도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개인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의 가구 디자인에도 주목했다.

대표 제품으로는 모듈을 더욱 세분화하고, 발판 리클라이닝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이동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인 모듈 소파 '더유닛'과 헤드 전·후면에 패브릭과 가죽을 각각 적용해 양면 사용이 가능한 패밀리 침대 '리버서블' 등이 있다.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모듈 구성 뿐만 아니라 소재까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침실서 완벽한 휴식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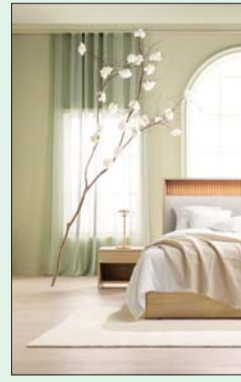
내추럴 인테리어 에이스침대

작년 웨딩 멤버서서 '루체-III' 인기

에이스침대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해 편안함, 안락함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겸비한 '내추럴 인테리어' 제품을 추천했다.

내추럴 인테리어는 차분하고 따뜻한 컬러로 침실에 평온함을 준다. 식물, 천연 섬유 등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 아이템과도 조화를 이루며 숲 속에 온 듯한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해 안락한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해 침실의 스타일을 책임지는 침대는 중요한 포인트 아이템이다.



편안한 분위기를...
니즈를 반영, 일상의...
한 휴식을 경험할 수...
선보이며 '좋은 잠'을...
이탈리아어로 빛을...
(LUCE-III·사진)는...
인 템바보드와 은은한...
편안하면서도 감각적

단장 프로젝트 집안에 봄 들어요



봄은 시작이고 희망이다. 곳곳
미래를 준비하려는 예비 부부들
바꿀 가구, 인테리어, 생활가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유투이미지

스톤·패브릭 등 136개 디자인... “취향껏 골라요”

LX Z:IN 벽지 베스띠
LX하우시스

웜톤·중간톤·쿨톤, 3가지 컬러 톤 구분

LX하우시스가 봄을 맞아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인기 벽지인 'LX Z:IN(LX지인) 벽지 베스띠(사진)'의 2024년형 신제품을 선보였다.

2024년형 베스띠 벽지는 페인트, 스톤, 패브릭 등 다양한 표면 질감 패턴과 최신 인기 트렌드를 반영한 무광 디자인 컬러 라인 등이 추가된 총 136개의 디자인으로 출시했다.

특히, 2024년형 베스띠 벽지는 표면 질감의 차이에 따라 ▲고운 질감 ▲중간 질감 ▲굵은 질감 등으로 나눠 소비자가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고운 질감의 벽지는 심플하고 아늑한



공간 구성에 어울리며 굵은 질감의 벽지는 모던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공간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디자인별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

하는 '웜톤', '중간톤', '쿨톤' 등 3가지 컬러 톤으로 제품을 구분해 제안, 소비자들이 원하는 컬러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형 베스띠 벽지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무광 디자인 컬러 라인을 새롭게 추가했다. 빛이 반사되지 않는 제품 표면이 보다 차분한 느낌을 선사하며 조명이나 자연광이 부드럽게 퍼져 공간을 한층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한편, 2024년형 베스띠 벽지는 가까운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 전시장이나 LX Z:IN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024년형 베스띠 벽지는 최신 인기를 반영한 디자인과 표면 질감 라인을 대폭 추가해 새해와 신학기를 맞아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방공간의 '혁신'



한 '올(ALL)-스테인 100° C의 고온수도 환해물질 걱정없이 안심
설 구조로 설계해 제품
지 사용 비용은 최대
존 직수 정수기 대비
5% 줄이고, EPS(스
대 96%까지 절감해 E
환경 정수기다.
안심케어(5일마다) ▲
다) ▲유료 순환케어

(2시간마다) 등 정수기 스스로 위생 관리가 가능한 '스스로 트리플 케어' 시스템도 탑재해 항상 깨끗한 위생 상태를 유지한다.

출수 용량은 120ml부터 1000ml 연속 출수까지 4단계로 이용 가능하며 10~50ml 단위 용량 조절이 가능해 취향에 따라 용량을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정수기 핵심인 필터는 프리블록카본과 복합 나노PAC 필터 2종을 탑재했다. 6단계 필터링 시스템으로 물 맛과 몸에 좋은 미네랄은 살리고, 유해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제거한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제공한다.

이음매 없어 '깔끔'... 곡면도 자연스럽게 표현

인조대리석 브랜드 '하넥스'
현대L&C

캐스케이드 베인 등 3가지 시리즈 준비

현대L&C가 인조대리석 브랜드 '하넥스'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 강화에 나선다.

하넥스는 MMA(메틸메타아크릴)계 인조대리석으로 자재 간 이음매가 없어 깔끔하게 시공할 수 있고 가공이 용이해 자연스러운 곡면 표현이 가능하다.

출시 이후부터 주방 상판 뿐만 아니라 병원·학교·박물관 등 다양한 상업시설의 건축 마감재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공극이 없는 무공질 자재라 내오염성과 방수성이 우수하고 위생성도 뛰어나다.

하넥스 신제품은 크게 ▲캐스케이드 베



현대L&C의 인조대리석 '하넥스' 린넨 화이트.

인 ▲콘크리트 ▲업사이클 테라조 3가지 시리즈를 중심으로 11개 세부 디자인이 있다.

'캐스케이드 베인 시리즈'는 자연 풍경 속 흐름을 형상화해 생동감 있는 디자인을 구현한 하넥스의 베스트셀러 시리즈다. 특히 캐스케이드 베인 신제품은 나뭇결(vein) 무늬에서 영감을 받은 은은한 패턴에 아이보리와 따뜻한 라이트 그레이 색상을 적

용한 것이 특징이다.

구성은 심플한 디자인에 밝은 느낌의 '캐스케이드 퓨어 그레이', 모던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그레이 계열의 '캐스케이드 도브 그레이', 베이지 색상으로 안온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캐스케이드 카멜', 린넨 특유의 멋을 인조대리석으로 재해석한 '린넨 화이트' 4종이다.

'콘크리트 시리즈'는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테리어 트렌드인 '인더스트리얼 무드(공업용 공간을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는 6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D-테라조'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하넥스 제품을 다시 분쇄해 만든 '리사이클 칩'을 사용해 재생산한 친환경 제품이다. 순백색 배경에 톡톡 튀는 색감의 리사이클 칩들이 생동감 있는 인테리어를 연출한다.

경험... '좋은 잠' 선사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공간인 침실에서 완벽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사하고 있다.

아트월 컨셉 침대다. 명품 갤러리에 온 듯한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무드를 선사해 신혼부부 침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루체-III'는 에이스침대의 예비부부 대상 맞춤형 서비스인 '웨딩 멤버스'에서 지난해 높은 인기를 보였던 제품으로,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실용적으로 제작했다. 헤드보드에는 소품을 둘 수 있는 수납 공간과 USB 충전 포트를 적용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쿠션에는 스테인프리 원단을 적용한 패브릭을 활용해 보풀이나 생활 오염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 깔끔한 침실 관리에 효과적이다.

루체-III는 인테리어 취향에 따라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콜롬비아워넌 컬러가 침실에 모던함을 더했다면, 새롭게 출시한 내추럴오크 색상은 침실에 따뜻한 감성을 더해 일상의 평온함을 전달한다.

'공간 확장감' 자체개발 소재로 새집증후군 No!

강마루 '진 테라'
동화기업

원목 특유의 질감·색감 사실적으로 담아

최근 공간을 더욱 여유로워 보이게 만드는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화기업이 선보인 '진 테라'는 공간이 넓어 보이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재에 나무 무늬를 사실적으로 더해 눈길을 끈다.

강마루 진 테라는 폭 161(mm), 길이 1215(mm), 두께 7.5(mm)로 대형 규격의 마루다. 폭이 넓고 세로가 길어 공간에 확장감을 준다.

유해 물질 방출에 대한 걱정으로부터도 안전하다. 진 테라는 동화기업이 자체 개발한 친환경 소재 나프 보드(NAF·포름알



동화기업의 강마루 진 테라 오프 화이트.

데히드 무첨가)로 제작한다. 새집증후군의 대표 원인으로 꼽히는 포름알데히드 방출이 거의 없는 SEO 등급의 자재로, 국내산 소나무를 사용했다.

진 테라는 원목 특유의 질감과 색감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바닥재 표면에 듀얼 글로시 효과로 나뭇결을 세밀하게 묘사, 공간에 나무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를 한껏 담아낼 수 있다.

듀얼 글로시 효과는 양각과 음각에 밝기 차이를 뒤 표면을 더 입체적이고 자연스럽게 구현해 내는 표면 처리 기술이다. 진 테라는 10가지 패턴을 선보이고 있다.

진 테라는 기능성도 갖췄다. 나프 보드의 경우 일반 합판 대비 열전도가 빠르고 이를 유지하는 능력이 좋아 바닥을 오랜 시간 동안 더욱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내수성도 우수해 습기에 의해 마루가 뒤틀리거나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표면은 특수 처리를 해 생활 속 찍힘이나 긁힘에 강하고 관리하기도 쉽다.

저PBR주에 몰린 ‘빚투’ 개미… 코스피 신용잔고 1兆 늘었다

19일 신용거래용자잔고 19.3조
유가증권시장에만 10.4조 기록
外人, 저PBR주 순매수 유입 지속
“가파른 상승세에 변동성 유의”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자 ‘빚투(빚내서 투자)’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 몰려 있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신용거래용자잔고는 19조2995억원으로 연초보다 약 1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만 10조3798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14일부터 매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약 1조원이 증가했다.

올해 저PBR주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자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빚투’도 몰리는 모습이다. 코스피 지수는 21일 약 2년 만에 2750선을 넘어서면서 2754.86에 마감했으며,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했던 1월 17일 이후로는 13.09%나 상승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저PBR주를 중심으로 순매수 유입을 지속한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권을 살펴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을 제외했을 때, 현대차(2조936억원), KB금융(6117억원), 기아(4726억원), 우리금융지주(3179억원), 삼성생명(3126억원) 등 저PBR 관련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18일 기준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증권, 보험, 금융, 운수장비 등 저PBR주



/유투이미지

가 포진된 업종들의 신용잔고가 급증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금융업은 23.06%, 증권 24.89%, 보험은 57.80%가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를 기록했던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를 담고 있는 운수장비 업종의 신용잔고도 22.60%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밸류업 기류에 편승하고자 관련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6월 30일까지 신용융자 7일물 이자율을 0%로 하는 ‘신용융자 1~7일물 이자율 ZER 0%’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량 상장사 중심(a-c등급, 저PBR주) 신용융자 종목 제공으로 시장 리스크 부담이 축소되고, 통상 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 조절을 하고 있다”며 “시장이 좋을 때는 신용을 써서 레버리지로 수익을 더 내기 때문에 밸류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도 나온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보증권에서는 오는 4월

말까지 신규 신용 매수에 대해 180일간 조건 없이 신용거래이자율을 연 4.5%를 적용하고 있으며, SK증권도 오는 29일까지 30일간 연 4.5%의 신용 단일 금리를 제공한다. 한화투자증권도 내달 30일까지 신용대출금리를 90일간 연 4.8%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시장 내에서는 저PBR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와 가파른 증시 상승세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용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투자 관심이 높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간 급등한 국내 증시에 대한 과열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반대매매를 유의해 신중하게 투자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대매매란 증권사 고객이 신용융자 등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빌린 돈을 약정 기간 내 변제하지 못했을 때, 투자자 허락 유무와 관계없이 주식이 처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예탁원, 전자투표 서비스 활성화 지원

지난해 전자투표 행사율 10.21%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 10일 전부터 전날까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주주는 시간적 제약 없이 의결권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다. 또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주총 개최지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수의 회사가 특정일에 주총을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주주는 각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원은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 2010년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2015년에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성원과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통했다. 2020년에는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전면 재구축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K-VOTE 사이트와 연동 가능한 전자고지서비스(e-Notice)를 추가했다. e-Notice는 직전년도에 전자투표를 이용했던 주주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해 주주총회 안내사항을 제공해 주주들의 권리행사 불참을 막고, 전자투표 이용을 유도한다.

주주 수가 2만 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투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수료 개편도 시행한다.

/원관희기자 wkh@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자산배분 전략 활용

변액펀드 75.5% 해외자산에 투자
업계 평균 해외투자 비중 웃돌아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은 글로벌 분산 투자 원칙에 따라 자산을 보다 안전하고 다양하게 배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지난 2023년 4분기 기준 미래에셋생명은 변액펀드 75.5%를 해외자산에 투자해 10.4% 수준인 업계 평균 해외투자 비중(당사 제외)을 압도적으로 웃돌았다.

미래에셋생명은 미국, 일본, 인도 등 해외 국가뿐만 아니라, 인덱스, 글로벌 반도체, 컨슈머 등 섹터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변액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와 관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포트폴리오펀드 ▲향후 성장

산업에 투자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성장주펀드 ▲주가지수의 성과를 추종해 시장수익률 수준의 성과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인덱스펀드 ▲특정 국가나 지역에 투자하여 자본 수익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지역펀드 ▲채권의 이자 수익과 매매차익 추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채권펀드 ▲해외채권의 수익과 달러 강세 시 추가 수익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환오픈 채권펀드 등의 펀드를 제공 중이다.

위대한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본부장은 21일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로 변액보험펀드에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변액보험은 해외 투자를 비교سه로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산가들이 투자 목적으로 변액보험 상품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올해 자기자본 1兆 도약 원년 삼을 것”

한양증권, 임재택 대표이사 4연임
2018년 취임이후 지속적 성장세
“디테일한 강한 증권사로 발돋움”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가 4연임에 성공했다.

한양증권은 21일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제6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임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한양증권 이사회는 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추천하며 “회사 내부사정에 정통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에 적합한 전략 수립 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에 부정적 이슈가 많았음에도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원칙중심 경영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임 대표의 취임 이후 한양증권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취임 당시 2689억원이던 자기자본은 4898억원으로 82% 증가했다. 앞서 임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을 자기자본 1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막을 여는 원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더불어 취임 이전 6년 간 연 평균 80억원이던 영업이익도 평균 499억원으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한양증권

로 7배 가까이 상승했다. 업계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난해에도 영업이익 25%, 당기순이익 46% 증가를 기록하는 호실적을 거뒀다. 2021년에는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6년 간 평균 13%로 업계 최상위권이다.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부채 비율도 0%를 유지함으로써 강화된 리스크관리 역량을 보이기도 했다.

조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2018년 227명이던 임직원 수는 현재 51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사이 10본부 19부서에서 24본부 77부

서로 조직 규모가 확대됐다. 비즈니스 경쟁력과 수익력, 브랜드밸류(Brand Value) 등 무무형적 가치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임 대표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지난 6년 간 한양증권의 성장은 재단의 전폭적 지지 하에 전 임직원이 각자의 전장에서 치열하게 일한 결과물”이라며 “진정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며, 열정을 지닌 인재들이 몰려오는 가장 역동적이고 생명력과 디테일이 강한 증권사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이사는 1958년생으로 신한금융투자 마케팅본부장, 아이엠투자증권 대표이사, AJA인베스트먼트 부회장, GB프라이빗에쿼티 부회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2018년부터는 한양증권의 수장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한편, 한양증권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1주당 일반주주 800원,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700원을 배당하는 차등배당안을 함께 의결했다. 우선주의 경우 1주당 일반주주 850원,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750원을 배당한다. 사내이사로는 진중신 Biz조직 총괄 상무가 신규 선임됐으며, 박종민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거래소, ‘KRX금시장 개설 10주년 세미나’

10주년 성과 공유·발전 방향 모색

한국거래소는 21일 오전 19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1층 컨퍼런스홀에서 ‘KRX금시장 개설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KRX금시장 홍보대사인 배우 진선규와 금시장 회원 증권사 및 귀금속 실물사업자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KRX금시장 10주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공로패 수여식에서는 배우 진선규(홍보대사), 한국투자증권(우수유동성공급자(LP)), 한국금거래소(우수실물사업자), 한국투자신탁운용(금현물 ETF 개발) 등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KRX금시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책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개장 시 대비 거래규모 약 12배 증가, 금시장 계좌수 110만개 돌파, 국제시세와의 괴리를 축소(최대 0.9% → 0.1%~0.2%) 등 10년만에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및 패널 토의에서는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대표가 ‘국내 금 실물시장에서 KRX금시장이 갖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 국내외 금 실물시장 수급요인과 참가자 현황 및 KRX금시장을 통한 국내 금 실물사업자의 성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주최:**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 **후원:** 충청북도

• **등록:** 운영사무국 M&C기획 02-721-9818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포럼에 참가한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V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이특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교수 "Organoids for Post-Radiotherapy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the RESTART study" 강연2: Ryuichi Okamoto 교수 "Clinical application of patient-derived organoids"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인간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정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임승원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바이오벤처기업의 IPO 전략" 최마혜 한국거래소 차장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2027년 원전설비 10조 수출목표 민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총력'

원전설비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
지원예산 작년 69억 → 올 355억
공관·무역관 설치 등 지원 추진
지난 1년 8개월간 4兆 수출계약

원전설비 수출 10조원 달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창원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원전설비 10조원 수출' 달성 방안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 세계 가동원전은 415기이며,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된 전 확대로 원전설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이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작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2년 33억원, 2023년 69억원에서 올해 35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원전수출 중점 공관(8개소)·무역관(10개소) 설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13개사를 선정해 지원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작년 말까지 1년 8개월간 총 105건, 4조866억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5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맨 오른쪽)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년간(2017~2021년) 수출 계약액 6000억원의 6배 이상에 해당한다.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사업과 단일 설비 역대 최대인 2600억원 규모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주수했고,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소형모듈원전(SMR) 설계 등 분야에서 총 103건, 7500억원 규모 성과를 창출했다.

이런 흐름에 이어 2024년 5조원, 2027년 10조원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총력을 펼친다. 우선 사업 규모가 크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원전 개보수, 발전기 교체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한다.

동시에 규모는 작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교육·훈련, 진단·검사 등으

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원전수출보증 특별지원(1250억원),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확대(13개사 → 30개사), 원전수출특별전 개최(2024년 12월), 중점무역관 추가지정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 이집트·루마니아 기자재 수출계약(71개 품목, 7700억원)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원전설비 4조원 수출의 원동력이 됐다"며 "2027년 10조원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 2000억 투입

첨단로봇 경제 전담반 1차 회의
대구시 달성군에 16.7만㎡ 규모 조성
올해부터 착수... 2027년 시범운영

정부가 로봇산업 실증과 사업화 기능을 수행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무역보협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첨단로봇 경제 전담반(TF)' 1차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TF는 강경성 1차관을 위원장으로 2개 분과, 37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보급, 제도개선 등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에는 국비 1305억원을 포함해 약 2000억원이 투입되고, 대구시 달성군에 16.7만㎡ 규모로 올해부터 조성에 착수한다. 가상·실 실증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실증평가 기술개발 등이 진행되고 2027년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TF에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이외에도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 2024년도 규제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첨단로봇 보급확산 추진방향 등에 대



대구시 달성군 소재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

한 안전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은 로봇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플랫폼, 부품, SW 등 5개 분야, 67개 핵심기술을 제시했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성공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해 산업부(정책지원), 대구시(부지확보, 인허가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집행관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사업총괄, 인프라 구축)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날 기관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51개 과제 중 20개 과제를 완료했고, 올해는 순찰로봇, 방역

로봇 도입을 위한 지침 제·개정 등 20개 이상 과제 완료를 목표로 했다.

신규 규제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한다. 첨단로봇 보급확산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공공, 민간 분야에 로봇 보급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로봇 거리조성 등 지역별 보급전략 등이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안전은 구체화되는대로 로봇산업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장관)에 상정, 확정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테스트필드 조성, 기술개발, 보급 확산, 규제개선 등 첨단로봇 경제 TF가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韓 성별 임금격차 '1위'... 재생에너지는 '꼴찌'

통계청 '韓 SDG 이행보고서 2024'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이 되레 악화되고 있고 남녀 간 임금격차는 주요국 중 가장 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사회·환경·경제 등 각 분야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한 17개 SDG 목표별 한국의 이행현황을 담았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지난 2022년 기준 총 인구에서 0.324로 전년 대비 소폭(0.005) 줄어 개선됐다. 그러나 66세 이상 은퇴자나 이대의 지니계수는 0.383으로 1년 전보다 0.005 늘어났다. 노인 빈곤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 또한 간극이 여전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1%)을 크게 웃돈

다. 또 여성관리자 비중은 OECD 평균이 34.2%에 달한 반면 한국은 14.6%로, 회원국 중 2번째로 낮았다.

상대적 빈곤율도 2022년 15.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올랐다. 빈곤율은 2017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던 재작년에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또 2023년 기준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1.9%에 달했으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54.2%에 머물렀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한시적 임금근로자가 59.7%, 비전형 임금근로자가 50.8%, 시간제 임금근로자가 33.6% 순이었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2020년 기준 3.6%로 OECD 평균인 14.9%의 1/4 수준에 그쳤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6억7600만 톤(CO2e q.)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발전하려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이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마트에 수입과일 2000t 공급

aT 통해 오렌지·바나나 등 직수입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들여온 오렌지·바나나 등의 공급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한 오렌지 및 바나나 등 수입과일을 이날부터 대형할인마트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수입과일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최대 20% 할인해 공급하고, 대형마트는 소비자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자체 할인까지 더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바나나 1400톤, 오렌지 600톤 등 2000톤 이상

를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또 지난 18일 직수입 품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파인애플·망고 등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하여 다양한 수입과일을 3~4월 중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은 현재 7만6651톤의 통관이 완료됐다. 망고 및 파인애플 등은 할당관세 적용 이후 소비자 가격이 각각 41.7%, 10.7%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삼성전자 등과 '물 위기' 대응

'워터 포지티브' 구상 주도적 대응

정부가 국내 주요 대기업과 손을 맞잡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응한다는 '국제사회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과 관련해 주도적 참여에 나선다.

환경부 오는 2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CDP코리아 등과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 구상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워터 포지티브의 개념에는 기업 내 용수 확

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유역 내 수자원 추가확보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에 극한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물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산업공정 전반의 필수 자원이자 대체재가 없는 자원인 물의 고갈은 전 세계 산업에 실체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으로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관리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정직하고 바른 외식브랜드 의지 가장 한국적인 재료 ‘메밀’ 선택”

교촌에프앤비 ‘메밀 단편’ 론칭 2년여 준비기간 거쳐 브랜드 탄생 국내산 100% 순메밀가루 사용 식기는 무형문화재의 방짜유기
“가맹 사업보다 직영점 늘리고 안정적 운영엔 미국 진출 계획”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메밀 요리 브랜드 ‘메밀 단편’을 선보이며 사업을 다각화한다. 교촌에프앤비는 21일 서울 여의도동 메밀단편에서 ‘메밀단편 미디어 시식회’를 열고 브랜드 개발 배경과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메밀 단편은 교촌치킨이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탄생한 브랜드다. 이날 송원엽 교촌에프앤비 글로벌비즈니스사업부 혁신리더는 “메밀단편은 정직하고 바른 외식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교촌의 의지를 담아 다양한 외식 문화를 연구한 끝에 내놓은 브랜드”라며 “가장 한국적인 재료로 장인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브랜드를 고민한 가운데 과거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는 서민들의 귀중한 식재료였던 ‘메밀’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입을 뗐다.

교촌치킨이 메밀단편 사업을 펼치는데에는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의 영향도 있었다. 송 혁신리더는 “교촌하면 간장맛, 매운맛, 허니맛, 소스가 유명하지 않나. 권 회장은 식문화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이러 시그니처 소스와 메뉴 개발에 남다른 견해가 있다”며 “권 회장이 메밀단편 사업 기획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말했다.

메밀단편은 밀가루나 전분을 첨가하지 않은 강원도 봉평의 국내산 함량 100% 순메밀가루로 매일 아침 자가제면을 통해 메밀면을 뽑고, 1++등급의 한우와 닭으로 육수를 만들며, 파주에서 3대째 기름집을 이어오는 명품 들기름을 사용하는 등 식재료부터 음식을 만드는 과정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송원엽 교촌에프앤비 글로벌비즈니스사업부 혁신리더가 메밀단편 미디어 시식회에서 브랜드 소개를 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메밀단편 반상 /교촌에프앤비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사용하는 식기 또한 서서히 잊혀져 가는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이봉주 장인이 직접 만든 방짜유기를 공수하는 등 고객에게 정성의 맛과 품질을 다하기 위해 전국 팔도를 다니며 브랜드를 준비했다.

메밀단편은 첫 매장 위치를 선정하는데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됐을 정도로 출점 상권 분석에도 신중을 기했다.

그 결과, 직장인 약 25만명을 비롯해 하루 유동인구가 73만명에 육박하는 여의도 비즈니스 상권을 선택했다. 안정적인 고정 수요와 소비력을 기대할 수 있어 신규 브랜드 론칭에 최적화된 상권으로 판단했다.

송 혁신리더는 매장 확대 계획에 대해 “일단 가맹 사업보다는 직영점을 늘려 고객을 만날 생각이고, 운영이 안정화되고 판매 메뉴들도 더 확대되고 준비가 되면 그때 가맹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그리고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수할 수 있고 운영 상황이 다듬어지면 미국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비즈니스 상권인 여의도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 주말 방문객도 증가세를 띠며 일 평균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14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고객들의 주문 메뉴를 분석해보면, 대표 메뉴인 메밀면 외에도 ‘은하수 막걸리’ 등 주류 메뉴와 사이드 메뉴 주문 비중 또한 높아 객단가 역시 지속 상승 중이다. 특히 ‘은하수 막걸리’ 2종은 교촌의 관계사 ‘발효공방 1991’에서 만든 전통주로 물, 쌀, 누룩 외에 어떠한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발효공방 1991’은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13대 종부 조귀분 명사로부터 한국 고유의 전통주인 감항주 양조법을 직접 전수 받아 현대화해 은하수 막걸리를 선보였다.

메밀단편은 이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프리미엄 전통주 은하수 막걸리 등 주류 메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저녁 식사 메뉴에 대한 고객 니즈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부드럽게 삶은 1++ 한우 양지와 사태, 차돌박이를 야채와 데쳐먹는 전통 전골 요리 ‘한우 어복쟁반’을 저녁 정찬 신 메뉴로 새롭게 선보이며 메뉴를 다양화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바사 독감백신, 태국 넘어 남반구 간다

태국 기업에 ‘스카이셀플루’ 수출 동남아 비롯 남반구 판매 확대 기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가 태국 수출을 시작으로 남반구 진출에 신호탄을 올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셀플루 약 44만 도즈를 태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텍에 공급하기 위해 안동 L하우스에서 출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4시즌 남반구 유행 예상 독감 균주로, 스카이셀플루의 남반구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바탕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 본격적

으로 남반구 시장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형으로 WHO의 남반구 독감백신 접종 지침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백신 공급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또한 태국 질병통제국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독감이 기승을 부리자 최근 31개 주요 관광 지역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방접종에 나설 정도로 독감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속적인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이번 수출은 태국 독감백신 시장에서 스카이셀플루의 점진적인 점유율 상승과 함께 향후 국제아동기금(UNI



스카이셀플루 수출용 제품.

CEF), 범미보건기구(PAHO)와 같은 국제기구의 조달시장 및 개별 국가 진출 시 긍정적인 사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카이셀플루는 이미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몽골, 파키스탄, 칠레 등 12개 국가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10개국에서 추가 허가도 진행 중이거나 예정으로 본격적인 수출 시장 확대를 앞두고 있다. /이세경 기자

바이오시밀러·비만약 등 R&D 성과 동아ST 신약, 세계에서 ‘주목’

동아에스티가 신약연구개발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물론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만약이 대표적이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동아에스티의 ‘DMB-3115’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DMB-3115’ 경쟁사 대비 빠른효능 입증 ‘차별화’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A-1726’ 상반기 중 글로벌 임상 1상 개시

동아에스티는 지난 2021년 미국을 비롯한 9개국에서 6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DBM-3115 글로벌 3상에 돌입, 지난 1월 동등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톱라인(핵심)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유럽 임상에서 경쟁사(12주) 대비 빠른 8주 만에 효능을 입증해 차별성도 확보했다.

동아에스티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1세대 기업으로 1990년대부터 1세대 바이오의약품이었던 인터페론 알

파,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G-CSF, 인성장호르몬인 hGH, 빈혈치료제 EPO, 난포자극호르몬 FSH를 개발했고, 지금까지 동아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동안 바이오의약품 출시를 통해 축적된 경험도 쌓고, 또 글로벌 90여개국 판매망과 10종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상용화 경험을 보유한 인타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A-1726’과 MASH치료제(비알코올성 지방간염) ‘DA-1241’도 주목받는 아이টে이로 꼽힌다. DA-1726은 옥신토모돌린 유사체 계열의 비만치료제로 개발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동아에스티의 자회사 뉴로보파마슈티컬스는 DA-1726 글로벌 임상 1상을 올해 상반기에 개시하고, 2025년 상반기에 종료할 계획이다.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241은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다. 뉴로보파마슈티컬스는 지난해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DA-1241의 글로벌 임상 2상 파트1을 승인받았으며, 9월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맥심플랜트 ‘봄의 정원’으로 새단장

시즌 한정 ‘스프링 블렌드’ 출시 움직이는 자이언트 플라워 전시



맥심플랜트 3층 브루잉 라운지. /동서식품

국내대표커피전문기업동서식품이 운영하는 커피 복합문화공간 ‘맥심플랜트’가 다가오는 봄을 맞아 안팎을 산뜻하게 단장했다.

먼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원두를 블렌딩한 시즌 한정 ‘스프링 블렌드(Spring Blend)’를 출시했다. 스프링 블렌드는 은은한 꽃향기에 곱의 상큼함, 그리고 샤인머스캣의 달콤한 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동서식품의 커피 제품을 활용한 맥심플랜트만의 시즈널 메뉴도 판매한다.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와 달콤한 썬크림의 조화가 이색적인 ‘화이트골드 썬라떼’는 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재출시한 메뉴다.

또한 맥심플랜트 매장은 ‘만연한 꽃들이 가득한 봄의 정원’ 콘셉트로 새롭게 단장했다. 곳곳에 움직이는 자이언트 플라워와 형형색색의 생동감 넘치

는 꽃을 활용해 봄의 화사함을 살리고 공간에 활기를 더했다.

맥심플랜트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오픈한 맥심 브랜드 체험공간이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방문객 110만명을 돌파하며 한남동 랜드마크 자리매김했다.

맥심플랜트에서는 ‘도심 속 정원, 숲속 커피 공장’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매장 내 대형 로스터 등 전문적인 커피 제조 설비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자의 취향에 맞는 스페셜티 커피를 추천해주는 ‘공감각 커피’, 맥심 제품을 활용한 커피 및 디저트 메뉴도 맛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시네마 수원 ‘특화관 성지’ 리뉴얼

컬처스퀘어 지향... 슈퍼플렉스 오픈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Culture Square)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수원을 특화관 성지로 리뉴얼 오픈해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3일 롯데시네마 수원에는 ‘PL F(프리미엄 라지 포맷)’ 상영관의 표본 ‘슈퍼플렉스(SUPER PLEX)’가 리뉴얼 오픈한다. 변화한 슈퍼플렉스는 가

로 21m의 와이드 스크린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최신4K 레이저 영사기 설치로 최상의 밝기와 화질을 구현했다.

또한 최고 수준 사운드를 위하여 설치된 돌비 ATMOS 음향 시스템으로 영화의 현실감을 극대화했다. 전석 리클라이너 좌석은 편안함을 배가시켰고 스위트 스낵존, 프라이빗존은 파티션을 설치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구현하였으며 생수 및 충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적의 영화 관람 환경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美 진출 가시화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들의 미국 진출 가시화를 위해 추가 행보에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20일 대전 본부에서 미국 OCIE SBDC(중소기업개발센터),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오렌지카운티한인상공회의소와 한-미 양국 수출입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진공



동반위, 업종 간 갈등 해소·경쟁력 강화 나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도 상생컨소시엄 사업과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통해 업종 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동반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24년도 상생협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반위



우리銀, 외국인직접투자 전담 특화채널 추가 개설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외국인직접투자 전담 특화채널인 '글로벌투자WON센터'를 광화문 서울파이낸스빌딩에 추가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투자WON센터'는 지난 2023년 7월 조병규 은행장 취임 직후 신설한 특화채널로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등 기업 해외자본거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우리은행



한신대 박물관, 소장 유물 보고서·국가귀속 진행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박물관은 '2024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재청과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한신대를 비롯해 전국 대학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국가 귀속 절차 등이 진행된다. 이후 교육·전시·도록 발간으로 시민들에게 유물 공개가 될 예정이다. /한신대



광동제약, 제주 취약계층에 1억 상당 음료 기부

광동제약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음료 나눔' 전달식을 갖고 제주 취약계층을 위해 1억원 상당의 음료를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광동제약

현대차·기아, 성균관대와 자율주행 센서 개발 '박차'

**4D 이미징 레이더 공동연구실 설립
3D比 해상도·고도측정 기술 ↑
레벨 3 이상 자율주행 활용 가능**

현대차·기아가 성균관대와 차세대 자율주행 센서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기아와 성균관대는 자율주행차에 쓰일 초고해상도 4D 이미징 레이더 센서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실을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 설립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연구실은 개발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왼쪽)과 현대차·기아 선행기술원장 이종수 부사장이 21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공동연구실 현판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필수적인 초고해상도 레이더 구현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현재 양산 차량에 탑재된 3D 레이더 센서는 카메라나 레이더 센서에 비해 해상도가 떨어지고, 사물의 고도를 측정하지 못해 소형 물체를 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4D 이미징 레이더'라고도 불리는 초고해상도 레이더를 개발 중이다. 기존 3D 레이더에 비해 해상도가 최대 수백 배 높아지고, 고도 측정 기술이 추가돼 훨씬 더 정밀한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레이더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원거리에서도 물체를 더 잘 구분해낼

수 있고, 차량 주변의 주요 객체를 인식하는 능력이 증대돼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미래항공모빌리티, 로봇틱스 등에서도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고도화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공동연구실은 기존 센서와 동일한 크기에서 더 많은 안테나를 집적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레이더용 반도체 칩(MMIC)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기부, 중소기업과 상생 도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온디바이스 AI 챌린지' 출범식에서 관계자들과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기부

LG전자 등과 AI 스타트업 육성

온디바이스 AI 초격차 챌린지 MS, 인텔코리아도 동참

중소벤처기업부가 LG전자 등과 손잡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코리아도 동참한다.

차세대 딥러닝 기술로 꼽히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는 기기에 탑재한 AI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신을 통해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적으로 AI 학습과 연산 등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LG전자, MS, 인텔코리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디바이스 AI 스타트업 간 협업 추진을 위해 '온디바이스 AI 초격차 챌린지'를 공고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챌린지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추진해 오던 '팍시스

초격차 챌린지'에 이어, AI 분야에서 유망 AI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챌린지는 이날 공고를 통해 생성형·온디바이스 AI 개발 역량을 보유한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공모 분야는 ▲온디바이스 AI PC 분야 ▲온디바이스 AI 응용 분야 ▲자유 제안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챌린지 희망 스타트업은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스타트업은 LG전자(디바이스), 인텔(칩셋), 마이크로소프트(SW)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부터 기술검증(PoC) 등 기술지원과 중기부로부터 협업 비용을 지원받는다.

/김승호 기자 bada@

'우문현답' 현장중심 정책 추진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소통포럼' 발족
위원 16명, 1년간 자문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현장소통포럼'을 발족했다.

중기부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소통포럼' 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위원은 앞으로 1년간 중

소기업 정책에 대해 자문한다.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견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미래를 대비한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현장소통포럼이 중소기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마련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CJ CGV, 中 박스오피스 화제작 상영

'부산상하이영화전' 개최

CJ CGV는 중국 박스오피스 화제작을 상영하는 '2024 부산상하이영화전'을 오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상하이 우호 도시인 부산의 CGV 센텀시티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4 부산상하이영화전'은 상하이영화국 및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주최, 상하이영화배급방영업계협회와 CJ CGV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코미디부터 멜로드라마까지 2019년부터 중국에서 흥행했던 5편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렌탈, 고객중심 경영 실천의지 공표

올해 CCM 인증 추진 선포식 열어

롯데렌탈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선포식을 열고 고객 중심 경영에 대한 실천의지를 공표했다.

롯데렌탈은 지난 20일 롯데렌탈 카 서울역지점에서 올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내용의 선포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운 기자



SKT·SKB, 'iF 디자인 어워드' 나란히 수상

T-B 브랜드 리뉴얼·아트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T-B 브랜드 리뉴얼'과 'T-B 브랜드 아트월'로 각각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KT는 'T-B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3년 연속 본상 수상했다. 'T-B 브랜드 리뉴얼'은 글로벌 AI 컴퍼니로서 새롭고 미래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각 회사의 대표 브랜드인 T(SKT)와 B(SKB)를 재탄생시켰다.

T-B 브랜드는 리뉴얼 과정에서 기존 T-B 브랜드의 비대칭적 구조와 여백을 최소화해 모바일 상에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다.

SKB는 'T-B 브랜드 아트월'로 2년 연속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성원이 브랜드를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 사옥 내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콘셉트로 구성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인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이사 △경영관리본부장 조경숙
- ◆MBC △대전 MBC 대표이사 사장 진종재 △충북 MBC 이태문 △전주 MBC 정희찬 △원주 MBC 전병덕 △포항 MBC 이송용 △경남 MBC 이우환 △여수 MBC 이호인 △제주 MBC 정용식

- △목포 MBC 김순규 △대구 MBC 황의진 △춘천 MBC 최현영 △강원영동 MBC 한정우 △광주 MBC 김낙근 △울산 MBC 유해진 △안동 MBC 채환규 △MBC세앤아이대표이사 사장 도인태 △이사(부사장) 정영하 △이사 황선숙 △MBC아트 대표이사 사장 유현

손쉽게 만나는 NH농협생명 스마트 플레이스

AI 설계·간편 가입 절차·서류가 필요 없는 청구 방법까지
언제 어디서나 더욱 쉽고 편리한
NH농협생명의 디지털 서비스를 만나세요

NH헬스케어 플랫폼

일상 속 건강관리 앱
헬스케어 서비스

TM보험 스마트 고객확인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전화모집·모바일 청약 결합)

NH검진케어

온라인 보험 최초
맞춤 검진 추천 및 예약

페이퍼리스 청구

생명보험 최초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인슈어애드 챗봇

보험업계 최초 AI 설계사
대화형, 스토리형 챗봇 기능

코리봇

장수 리스크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3~5년 주기로 개정하는 보험개발원의 경험생명표(제10회)에 따르면 국내 남성 평균 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다. 5년 전보다 각각 2.8년, 2.2년 늘었다.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통상 상가에서 호상과 애상을 말한다. 평범한 죽음의 경우 평균 수명 이상을 살았는 지가 가능자다. 보험개발원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늘어난 것"이라며 "평균수명 및 고연령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 의료비 또는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래 살 위험이 화두다. 장수 리스크다. 실제로 일본을 뒤따라 가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기준 19.0%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2005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산의 수명도 늘어나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따끔한 조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이 평탄하길 바란다. 하지만 실재는 그렇지 않다. 사는 동안 돌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비를 맞고, 눈길을 걷기도 한다. 행복한 노후는 누가 가져다 주지 않는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이 조사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조사결과(2021년)에 따르면 서울에서 사는 경우 월 330만원이 필요하다.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다. 혼자인 경우 월 205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르면 50대 중반, 또는 만 60세에 은퇴하는 샐러리맨이 많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은퇴 이후 월 330만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3~4층 탑을 쌓아야만 불편하지 않은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우물쭈물 하다가 불행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김영의 서강대 교수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근로소득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한다. 한달 일해 30만원을 벌면 2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과 같다는 논리다. 그래서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직(職)'보다는 '업(業)'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업이 있으면 직을 얻고, 직만 찾으면 업을 잃는다는 것

이다. 직장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자산의 수명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김동업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본부장은 퇴직하면 연금도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부가 각자의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자녀를 둔 사람은 한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요즘 결혼하는 MZ세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 "엄마 아빠, 결혼할 때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을 주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라고. 결혼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한도가 올해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면서 나온 얘기다. 작년까지 자녀 결혼때 5000만원을 준비했다면 이젠 1억5000만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양가의 예라는 의미다. 자녀의 잡음 없는 결혼을 위해선 양가에서 지원하는 3억원이 디플트(최초 설정의 값·기본적 밑바탕)가 된 세상이다. 돈이 없어도 몸의 풍요를 갈망하는 것이 요즘 세대다. 걱정을 덜어낼 노후를 위해선 기대치를 낮추고,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도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원 바라보는 한국인



김 언 세
(정책사회부)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위기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서둘러 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신용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사건이 아닌 국제신용평가사 경고임을 밝혔었다. 한국인은 매달, 매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나이 45살에 진입한다. 10년 전 우리 국민은 평균 40살을 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월 39.7세였던 평균나이는 지난달 기

준 44.9세까지 치솟았다. 15년 전인 2009년 2월만 해도 30대 중후반(37.2세)이었으나 이제 원을 바라보고 있다. 전남(2024년 2월 48.6세)과 경북(48.2세) 거주민은 올해 이미 40대 후반이다. 이 두 지방의 여성 나이는 평균 50세(50.4, 50.0)를 이미 찍었다. 지난 10년간 국민 평균연령은 연평균 0.52살 늘어났다. 게다가 최근 1년간은 늘어난 속도가 더 빨라져 작년 2월(44.3세)에 비해 0.6살 더 먹었다. 행안부의 연령대별 인구는 심각성을 더한다. 60대(올해 2월 767만 명)가 머지않아 40대(790만 명)를 따라잡을 기세다. 60대 국민 수는 이미 30대(654만 명)보다 100만 명 넘게 많다. 곧 40대마저 추월하면 남는 건 50대뿐이다. 10년 전에 60대(450만 명)는 40대(894만 명)의 절반 수준이었고, 30대

(799만 명)보다도 350만 명 가까이 적었다. 당시 60대는 20대와 10대는 물론 10세 미만 인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10년 만에 연령대별 7위에서 차례로 따돌리고 이제 2위 자릴 넘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6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총 15개 부처가 기획단에 속해 있다. 출범한 지 9달이 흘렀다. 이제 뭐라도 답을 내야할 때다.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최근 3개년(2021~2023)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코로나 19 이후 회복하는 도중이기에 부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 국민이 늘어 평균 50·60대가 돼도 경제가 굴러갈까 하는 염려가 든다. AI와 로봇이 있어 괜찮은가.

/kys@

오늘의 운세 3월 22일 (음 2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쉬었다 가지. 48년생 주머니 시끄러우니 말조심. 60년생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난다. 72년생 인생사 기쁨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84년생 투자를 하려면 미래전망을 공부.
- 소** 37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49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하자. 61년생 미국행이던 어느 길이라도 가다 보면 결과가 좋다. 73년생 아집을 접으면 행운이 도래. 85년생 평화로운 집안은 무릉도원이다.
- 호랑이** 38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다. 50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62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74년생 평범하게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적으나 성과도 적을 것. 86년생 애들에게 메모상친자교이다.
- 토끼** 39년생 자신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기쁘다. 51년생 화려한 외출은 오히려 부담스럽다. 63년생 영업이익이 왕성하니 다시 움직이자. 75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들어온다. 87년생 아내의 예절로 자녀교육이 절반은 성공.
- 염** 40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다. 52년생 회로애락을 나타내기보다는 드러내지 않도록. 64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나 책임도 따르게 된다. 76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조심. 88년생 동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드물 것.
- 뱀** 41년생 가족 간 돈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53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달성. 65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한다. 77년생 날새 탓 내 탓 나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라. 89년생 공연한 바람에 동화되지 않도록.
- 말** 42년생 배우자가 가장 큰 조력자임을 알기 아는데. 54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66년생 사랑에 지친 큰 복수는 완벽하게 잊어 주는 것. 78년생 영업의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니 보람이 있다. 90년생 서예로 우울함을 벗어보라.
- 양** 43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아량을 베풀자. 55년생 가는 길도 물이거야 실수가 없다. 67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길다. 79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치는 날. 91년생 마땅치 않은 시기에 투자는 손실.
- 원숭이** 44년생 작은 것에 집착 말자. 56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좁은 공간을 빙빙 도는 하루. 68년생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준다. 80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92년생 남에게 뒤처지는 것이 게으른 탓 아니겠는가.
- 닭** 45년생 격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57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거래가 손조롭다. 69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오는 법이다. 81년생 부모를 존경하면 집안이 경사. 93년생 업무실적 고만보다는 부족한 것을 분석.
- 개** 46년생 모임을 거창히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58년생 모난 돌이 정맞으니 오늘은 자중해야 한다. 70년생 남의 머리만 믿고 있다는 일을 고르친다. 82년생 바라던 취직으로 집안에 웃음꽃. 94년생 오랜만에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는 날.
- 돼지** 47년생 농작물 수확이 있다. 59년생 시비 및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해야 혼란스럽지 않다. 71년생 남편은 한 하늘에서 살 수 없는 원수 같다. 83년생 돈을 버는 것도 한 발짝씩. 95년생 소풍 지출이 많으면 예나저나 빠져나가게 되니.



김상회의四季 자존심은 문밖에

"자존심은 문밖에 두고 오세요." "독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 라는 노래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관한 얘기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공동으로 작곡한 이 곡은 역시 천재적 프로듀서로 알려진 퀸시 존스가 당대의 톱 가수들을 대거 참여하게 한 인류애적 프로젝트다. 앨범에 참여한 스타들을 대충 열거해 보자면 스티비 워너 티나 터너 레이 찰스 빌리 조엘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그야말로 당시 최고의 스타 싱어들이었다. 슈퍼스타 한두 명을 모이게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50명 가까운 스타들을 밤새 작은 스튜디오에 불러들여 놓고 녹음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당시 아프리카를 휩쓴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자 이 문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느낀 퀸시 존스가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마이클 잭슨 라이오넬 리치와 마음을 모은 결과다. 기사 내용을 보니 이 프로젝트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열리는 단 하루를 녹음일로 정하고 스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극비리에 몰입 섭외를 진행했고 대다수는 자신이 어떤 파트를 부르게 될지도 모른 채 스튜디오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때 녹음실 문 앞에 붙어 있던 문구가 "자존심은 문밖에 두고 오세요." (Check your ego at the door.)였다고 한다. 11시간이 넘도록 계속된 작업의 결과 이 싱글앨범은 빌보드 차트는 물론 전 세계 음악차트를 휩쓸었으며 1400만불이 넘는 수익금은 모두 기부되었다. 뜻이 좋아도 나쁜 한 꺾발 한다는 스타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의기투합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퀸시 존스는 자존심을 문밖에 두고 오라고 일갈한 것이다.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개개인에게도 요구되는 다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9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0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하일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알파벳을 증가시켜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4	3	6	8
7				9	
	5		1		4
8			9	5	
	7	5			2
4			3		8
	6				7
3	2		6	7	1

6	1			4	8
					4
9	4				3
3				2	
	7		5		9
			8		1
6	1	5			6
		8	3		5
					7

6	7	1	8	2	9
2	8	9	6	7	9
9	8	9	1	8	2
2	1	8	7	9	8
8	6	7	8	1	2
9	9	2	6	2	1
7	2	8	1	6	8
1	2	6	9	8	7
8	9	9	8	7	1

7	2	9	1	9	8
8	6	2	7	2	9
2	1	9	6	8	9
1	9	2	8	2	6
8	6	8	9	9	7
9	7	2	6	1	9
9	1	8	2	7	8
6	8	7	9	1	2
2	2	8	7	8	1

인천시,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올해 인구정책에 6182억 투입

고령사회 대응 등 48개 세부과제 인구 감소지역 내 사업 발굴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도

인천시가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연도별 계획인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구조변화 대응 등을 전략으로 4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 소요 예산은 6182억원이다.

시는 이들 사업의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 주거, 교통 등 분야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구영향평가도

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은 지난해 6월 수립한 인천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토대로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 59개 실천사업이 담겼다.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이 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시행계획이 반영됐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전년 대비 338억원(30%)이 증가한 149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 시 광역지원계정은 4개 사업(9억5000만원), 군·구 기초지원계정은 8개 사업(144억원)이 추진된다.

시는 그중 군·구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 평가등급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만큼 워크숍과 컨설팅 등을 통해 군·구 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맞춤형 지역특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평가등급 상향에도 힘쓸 계획이다.

인천시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시는 지역 간 특성을 면밀히 살펴 인구 유입 증가와 지역 활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 관련 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올해 처음 총 25명의 위원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구는 저출생, 일자리, 주거, 교통, 보건·복지, 청년 등 여러 분야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인구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교육사다리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

고3 학생 1084명 중 절반 이상 합격 참여 학생 87% “입시준비 도움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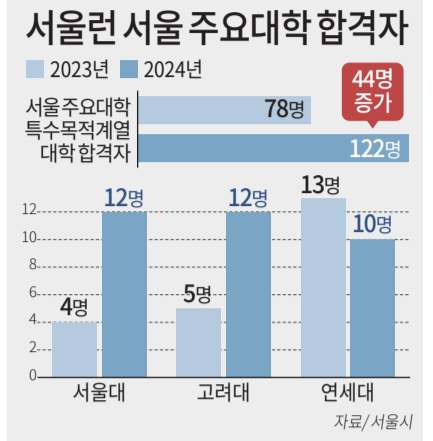
지난해 서울런 회원인 고3 이상 학생 중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1084명이며, 이 가운데 682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462명과 비교해 220명 늘어난 숫자다. 또 10명 중 9명은 입시 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런 이용자 진로·진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런은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1년 8월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시는 취약계층 6~24세 학생들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한다.

설문에 응답한 고3 이상 서울런 회원 1243명 중 수능 응시자는 108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82명이 2024학년도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를 비롯한 시내 11개 대학과의·약학계열·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



적계열 대학 진학 인원은 122명으로 전년 78명보다 56.4%가량 증가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수능 응시자의 87%가 ‘입시 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95%는 ‘후배들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서울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 시는 ‘AI 학습 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AI가 학습 진단 결과를 반영해 80만개의 검증된 EBS 문항 중 개인 맞춤형 문제를 제시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 풀 수 있도록 돕는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방지대책 마련

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신청 불가 투기 의심시 건축허가·착공 불허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시는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서울 시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뉴시스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조개기·갭투자 등 투기 조짐이 보여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구청장 판단 아래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사례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외 가능하다.

투기 세력 유입 초기 차단을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겼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구청장이나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 가능 구역별 조합 설립 인가가 돼야만 사업이 진행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의를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

“학교 체육, 주의력·사회성 발달에 도움”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 효과성 검증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교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주의력과 사회성 발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대에 의뢰해 ‘인지·사회성 발달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정책 연구를 진행한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서울 학생들의 신체력과 마음력 회복을 위해 아침운동 활성화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교체육 정책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진들은 대상 학생들을 운동군과 통제군으로 나눠 주의력(ADHD) 수

준, 사회정서역량척도, 주의집중력 검사로 인지성·사회성을 측정했다.

운동군은 12주간 주 2회, 준비운동 포함 45~50분 운동을 했으며, 체육과 교육과정 중 도전·경쟁 영역에 해당하는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9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주 2회 약 1시간 정도 운동프로그램은 초·중학생들의 인지,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의력 평가 중 ‘인지부족’에 대한 결과가 통제군(0.03)에 비해 운동군(0.17)에서 실험 전후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정서 역량에서도 운동군 학생(0.13)이 통제군 학생(0.08)들보다 실험 전후 의미 있는 향상을 나타냈다. /이현진 기자 ihj@

서울시, 부상제대청년 유공자 등록 지원

공무직 지원시 가산점 적용도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본격 지원한다. 보다 많

은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정당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요건 심사, 의료 자문, 행정 심판·소송 등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까지 전 과정을 도움 방침이다.

또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공무직에 지원할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부여되는 3%의 사회형평가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자리사업을 신청하면 가산점(10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22일(금) 음력: 2월 13일

해출 / 06:33 | 해질 / 18:46

수도권 날씨: 4 ~ 16°C

운동 지수: [진행도]

빨래 지수: [진행도]

세차 지수: [진행도]

외출 지수: [진행도]

지역별 날씨: 연천 0/15, 동두천 1/15, 가평 -1/15, 파주 0/16, 서울 4/16, 양평 1/16, 인천 5/15, 수원 5/16, 용인 5/16, 평택 2/18, 백령도 5/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전공의 ‘최대 연속수련 시간’ 우리나라 36시간, 영국 13시간”
▲교육부 “의대 증원, 국가정책…대학들 임의로 정원 조정 못해” /사진 뉴시스

▲작년 암 진료비 10조 넘어…5년간 진료비 선암·피부암·척장암 급증
▲올해부터 직업계고 학생도 ‘진로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받는다



▲검찰, SK지오센트릭 본사·공장 압수 수색…사망사고 관련 /사진 뉴시스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압수수색…檢 “재판개입도 수사”

아직도 프랑스 와인만 고집하십니까?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세상은 넓고, 와인은 많다. 넓은 세상만큼 다해 아리기도 힘든게 바로 와인인데 프랑스 와인만 바라보고 있기는 너무나 아쉽다.

특히 최근 몇 십년간 와인양조 기술이 몰라보게 발달하면서 매년 좋지 않은 해가 없다할 정도인데 국가별로도 그렇다. 포르투갈은 포트와인, 독일이라고 아이스와인만 떠올리다면 그야말로 구시대적이다. 전 세계 100대 와인에 한 두 병 이름을 올리는데 그간 와인 생산국으로는 변방으로 치부됐던 곳에서도 나라별로 100대 와인을 꼽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와인 평론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제임스 서클링이 올해 처음으로 '포르투갈의 100대 와인'을 선정해 내놨다. 지난 1년간 900종류 이상의 포르투갈 와인을 맛본 결과다.



(왼쪽부터) 니에푸르트 도루 로부스투스 2017 빈티지, 닥터 뷔르클린-울프 페히슈타인 2022 빈티지, 샤오 링 샤도네이 샹그릴라 홍포 2021 빈티지.



서클링은 "포르투갈 와인은 전반적으로 짝 짝 놀랄만큼 바뀌었다"며 "특히 도우로 벨리는 앞으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호평했다. 포르투갈 와인 1위에 오른 것은 포트와인이 아니었다. 니에푸르트 도루 로부스투스 2017년 빈티지다. 로부스투스는 도우로 지역에서 주정강화로 만들지 않은 최초의 와인이라는 기록도 있다. 지금은 니에푸르트에서 만들어진다. 일부 포도나무는 100년 이상 됐다. 편암 지질에 심어져 힘이 있고 산도

가 높으며, 탄닌 구조도 단단하다. 독일은 리슬링 와인이다. 닥터 뷔르클린-울프 페히슈타인 2022년 빈티지다. 무려 100점 만점을 받았다. 독일 와인 생산자 연합에서 분류한 등급 가운데 최상급에서도 단일 보도밭에서 만든 드라이한 리슬링이다. 미네랄 표현의 결자이란 평가가 나왔다. 서클링은 "2022년은 덥고 건조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의 집중력과 부실함 느낌의 미네랄 느낌을 갖춘 드라이 리슬링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며 "이 와인은 리슬링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전적인 새로운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슈냉블랑으로 유명했던 남아프리카에서는 이번엔 시라 품종의 와인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포르셀란베르크 스와트랜드 2021년 빈티지로 검은 과실과 허브, 후추, 철분 느낌이 복합적이며, 입안에 단단하면서도 섬세한 구조다. 그래도 슈냉블랑 명가답게 100위 와인 가운데 20개는 슈냉블랑 품종의 자리를 채웠다.

중국에서는 100대 와인을 선정한 이후 처음으로 1위에 화이트와인이 선정됐다. 샤오 링 샤도네이 샹그릴라 홍포 2021 빈티지다. 중국 운남성에 서도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인 샹그릴라 지역에서 만들었다. 신선한 청사과와 감귤류향에 적당한 산미와 매끄러운 질감이 잘 어우러지고, 짝 짝하다 느껴질 미네랄이 특징이다.

중국 와인의 품질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 시장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중국은 와인 소비와 생산 및 수입이 모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으로 감소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편집능력, 정보 과잉시대 조리 기본기”

편집은 무기다. 칼날의 날카로운 물성과 총알의 파괴력이 없다고 해서 무기가 아닌 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365일 24시간을 카메라에 전부 담아 편집자에게 가져다 주면, 그는 주변 인물의 인생을 갈기갈기 조각낸 뒤 이리저리 끼워 맞춰 그를 영웅으로도, 사회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로도 만들 수 있다. 편집이 무서운 이유다.

‘에디토리얼 씽킹’은 약 20년간 에디터로 일한 저자가 ‘편집자처럼 사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에디토리얼 씽킹’을 ‘정보와 대상에서 의미와 메시지를 도출하고, 그것을 의도한 매체에 담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하고 구조화하는 일련의 사고방식’으로 정의한다. 에디터도 아닌 데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나요?

책에서 저자는 “스마트폰과 SNS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 기업, 개인, 사물 등 모든 것이 미디어가 됐고, 볼 거리가 넘쳐나면서 신문과 잡지는 손 꼽히는 사양 산업이 됐다. 불안과 무기력이 짙은 안개처럼 업계 전체를 덮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달랐다. 잡지가 망해가는 게 아닌 세상이 온통 잡지화하는 걸로 보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정보와 맥락을 다루는 에디터라는 직업은 사라지기는커녕 다루는 일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만 갔다. 패션 잡지 단골 기사였던 스트리트 리얼 룩 콘텐츠는 ‘스타 일체어’가, 인테리어 잡들이 콘텐츠는 ‘오늘의 집’, 코스메틱 품평 콘텐츠는 ‘화해’가 서비스로 만들었고 포털 사이트는 아예 조인트 벤처로 잡지사를 차렸다.

저자는 “정확하게는 온 국민이 준 에디터가



에디토리얼 씽킹
최혜진 지음/티틀렉프레스

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SNS에 올릴 사진과 영상을 고르고 편집하고 바다 텍스트를 쓰면서 자기만의 해시태그를 정해 콘텐츠를 아카이브한다”며 “‘공급자 과잉의 시대’라는 사회적 변화 안에서 창조성 역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상품, 지식, 뉴스, 데이터, 콘텐츠 모두 현기증 날 정도로 넘쳐나는 세상이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다움이나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부터 기존 재료로 인 지적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 중요해진다”며 “에디토리얼 씽킹은 정보 과잉 시대의 조리 기본기 같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의미의 밀도를 높여가고, 데이터를 이야기로 바꿔가며, 사실에서 통찰을 이끌어내는 편집자적 사고 방식에 관한 A to Z를 다룬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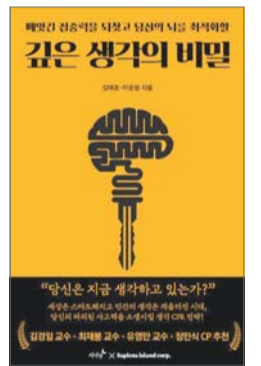
224쪽, 2만원.
/김현정 기자 hik1@

깊은 생각의 비밀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넷플릭스 드라마·영화 등 사람들은 SNS와 OTT 플랫폼에서 온종일 방대한 정보를 빨아들인다. 콘텐츠에 일방적으로 노출됐을 때 우리의 뇌는 생각하기를 멈춘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궁금한 게 생기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유튜브에 검색해보거나 챗GPT에게 물어본다. 과거 인류는 지구 상에

서 유일하게 생각하는 존재였다. 초거대 AI 등장 후 인간은 사고를 기계에 외주화하고 머리 쓰는 일을 줄여나가고 있다. 책은 밥그릇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인 AI보다 우위에 있으려면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을 기르라고 조언한다. 272쪽, 1만8800원.

김태훈, 이윤형 지음/저널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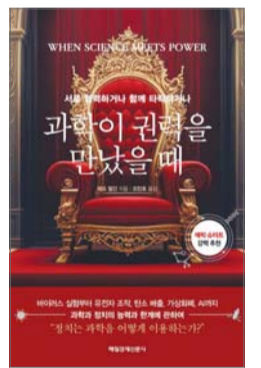


과학이 권력을 만났을 때

신종 전염병부터 지구 온난화까지 인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과학과 정치는 결탁해왔다. 국가는 전쟁과 경제 성장, 권력을 위해 과학의 신화를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과학과 정치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과학만으로는 스포츠에서 져든 구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원자력이 기후 변화의 좋은 대안인지 알 수 없다. 과학은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위협을 초래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과학은 정치의 지원이 필요하고, 정치는 과학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정치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중요한 것에 관여한다. 책은 정책과 규제에 대한 결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과학과 정치가 조화를 이룰 방안을 제시한다. 440쪽, 2만3000원.

제프 말건 지음/조민호 옮김/매일경제신문사



관찰은 정치인 되는 법

양극화(Polarization), 포퓰리즘(Populism), 탈진실(Post-truth) 이른바 3P 현상이 급부상하며 현실의 민주 정치를 위협하고 있다. 저자는 ‘정치’를 ‘관계, 연합, 영향력, 권력을 둘러싼 활동’으로 정의한다. 고로 세상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시민의 동의를 얻어내고 상대편과 합의를 끌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정치인은 문제가 아닌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며 역할과 직책을 똑바로 인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일에 충실히 복무할 것을 강조한다. “정치인들은 세상의 많은 중요한 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늘 겸손하고 친절하고 성실하라. 이것이 모든 정치인에 대한 나의 희망이자 조언이다” 200쪽, 1만7500원.

브라이언 C. 헤거티 지음/박수형 옮김/서해문집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日서 전복 ‘11명 탑승’ 韓선박 수색 이틀째... 1명 추가 발견, 1명 실종 / 사진 뉴스스
▲ EU 외교수장, 러 동결 자산 기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공식 제안

▲ 美 “안보리에 가자 ‘즉시휴전 촉구’ 결의안 제출... 휴전협상 입장차 좁혀”
▲ “일본은행 추가 금리 인상 ‘7월·10월’론 부상... 언저 주시”



▲ 호주, 영국과 방위·안보협력 협정 체결... “중국 대두 견제” / 사진 뉴스스
▲ 美인태사령관 “중국,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완료할 것”



교촌에프앤비 '메밀 단편' 론칭 사업 다각화
니



Life

현대차·기아
성균관대와
자율주행 센서 개발
L2



잇몸관리로 인생건강을... “꼭꼭 씹는 행복 느껴보세요”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동국제약 '인사돌'

1978년, 인사돌 출시... 잇몸 인식 바뀌
2014년, 특허받은 '인사돌플러스' 출시
먹는약으로 잇몸 안쪽부터 효과 작용
생약복합성분으로 장기간 치료 효과적

'인사돌'은 50년 역사를 가진 동국제약이 건강한 국민 생활을 지향하며 지난 1978년 국내에서 선보인 일반 의약품이다. 인사돌은 아무도 잇몸에 관심 없던 시절에 등장해 잇몸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며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브랜드로 발전했다.

예로부터 치아 건강은 오복(五福)의 하나로 여겨진 만큼 치아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1970년대, 인사돌이 발매되기 전의 국내 상황을 돌아보면 잇몸 건강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다. 치과 치료 역시 보편적이지 않았다. 잇몸 질환이 발생해도 관련 정보가 많지 않아 고통을 참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국제약은 잇몸 질환을 해결하는 해외 제품을 도입해 동국제약만의 독자 기술로 제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인사돌은 잇몸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은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게 됐다. 무엇보다 인사돌이 외친 '잇몸 건강'이라는 화두는 국내에서 잇몸 관리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꿨다.

인사돌을 통해 소비자들 잇몸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실천하자 동국제약도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동국제약은 1990년대부터 10여 년 동안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연구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생약연구팀 등과 함께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활용한 기초 및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국제약은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잇몸약 복합제 '인사돌플러스'를 출시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인사돌플러스'는 기존 인사돌 성분인 '옥수수불검화 정량추출물'과 새롭게 추가한 '후박추출물'을 1대 2 비율로 배합한 국내 최초 생약복합성분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은 잇몸 속에서 잇몸 뼈 형성을 촉진하고 치주인대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박추출물은 잇몸병을 유발하는 치주병인균에 대해 항균, 항염 작용을 한다.

이 두 가지 복합 성분을 활용한 '인사돌플러스'는 잇몸 겉과 속에 한 번에 작용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사돌플러스의 효능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제'로 규정한다.

또 다른 '인사돌플러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먹는 잇몸약'으로 섭취 후 인체에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잇몸 안에서부터 효과가 작용한다는 점이다.

학문적으로 잇몸 질환은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인 잇몸, 치조골, 치주인대 등에서 발생한다. 잇몸 표면을 비롯해 잇몸 속



지난 15일 서울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에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이 동참했다.



동국제약이 지난해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잇몸과 임플란트 관리 위한 잇몸건강 3단계 실천'을 설명하고 있다.



인사돌 광고 '잇몸은 은퇴없는 평생 현역' 스틸컷. /동국제약



조직인 치조골, 치주인대 등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동국제약은 '인사돌플러스'가 이러한 질환 인식 관점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인사돌플러스'는 생약복합성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잇몸병 치료와 관리에 더욱 효과적이다. 최근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함께 인사돌플러스를 복용하는 것은 잇몸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돌은 이제 한국을 넘어 유럽 수출길에도 오른다. 인사돌은 올해 1월 스위스 의약품청으로부터 일반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품목허가로 인사돌은 치은염 및 치주염 등 치과 치료만으로 불충분한 잇몸 질환에 대한 효능을 인정받았다.

'제약강국'인 스위스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초기 잇몸 염증을 비롯한 초기 치주 질환에서 인사돌의 효능을 인정받았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과거 우리나라보다 의약기술이 발전했던 유럽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던 동국제약이 현재는 명실상부하게 'K-의약품'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스위스 일반의약품 품목허가 획득 잇몸의 날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 구강보건 캠페인 등 잇몸관리 알려

이처럼 잇몸 건강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동국제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한다.

동국제약은 대한치주과학회와 함께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제정한 바 있다. 하루 세(3) 번 잇(2)몸을 사(4)랑하자는 뜻을 담았다.

또 동국제약 임직원들로 구성된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은 2009년부터 매년 잇몸의 날을 맞아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에 참여한다. '사랑의 스케일링'은 평소 치과 방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강검진, 스케일링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능기부 활동이다.

올해도 '제16회 잇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사랑의 스케일링'이 진행됐다. 대학치주과학회 회원과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학생이 팀을 이뤄 행사 참여자 71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과 칫솔질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밖에 동국제약은 인사돌플러스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잇몸건강24 캠페인' 등을 통해 공개 건강 강좌, 토크 콘서트 등도 운영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잇몸 관리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잇몸 질환은 고혈당,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등 만성 질환부터 스트레스·우울증, 치매나 폐질환 등에 이르기까지 전신 질환 연관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잇몸병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잇몸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전신 질환이 발생하는 것도 밝혀졌다는 것이 동국제약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동국제약 인사돌은 잇몸 관리로 얻는 꼭꼭 씹는 행복을 강조하기도 한다. 40년 넘는 긴 세월, 잇몸이 건강하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인사돌은 노력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이강인 사과에 佛매체도 주목...누리꾼 "이해 안 돼"
▲피겨 차준환 "발목 부상 나아져...계선수권서 최선" /사진 뉴시스

▲국립현대미술관 떠난 현대차, 휘트니 미술관 10년 후원
▲국방대, 방위산업·문화예술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마약 논란 터진 오재원 SNS 활활...누리꾼 "갑론을박" /사진 뉴시스
▲쌍둥이 할아버지 같은 '길버트와 조지'...타데우스로파크 서울서 개인전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KB 금융그룹



전세사기 없는 세상
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이 함께 합니다
 다가구주택 계약시 **확정일자부**와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꼭 확인하세요



해당주택의 **적정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체납여부**와
계약권리여부등도 꼭 확인하세요

웹툰 작가 키키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① 다가구 주택 편

평온 걱정 말고 영성화해~
 영마..
 대학교 4학년 때, 영마가 주선 보증금을 전세사기 당했어요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확정일사도 종 19세대 중 19번째로 받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19
19번째 라니..

전세금을 마련해 주신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에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죄송해요...

네여기다 적어주세요
 네에..

보증금을 받고 장수를 태워낸 임대인을 형사고발했고 지명수배가 내려졌어요

OO경찰서입니다 임대인 잡혀서 연락드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신호위반으로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임대인의 자네가 공사방이었고 문제가 될까봐 형사고발 취하려는 조건 하에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전세금은 돌려받았지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이 들었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
 젊으니까 과반참아 다 피가 되고 살이 돼

좋은 집 구하실 거예요??

전세사기 피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있으시다면 꼭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꿀팁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에서 주소와 보증금 입력만으로 전세계약 안전여부 확인 가능
 ※등기상 소유권 및 권리침해 사항과 시세, 선순위 금액을 통한 전세가율 분석 등 ※별도 통지 시까지 월 2회 무료